소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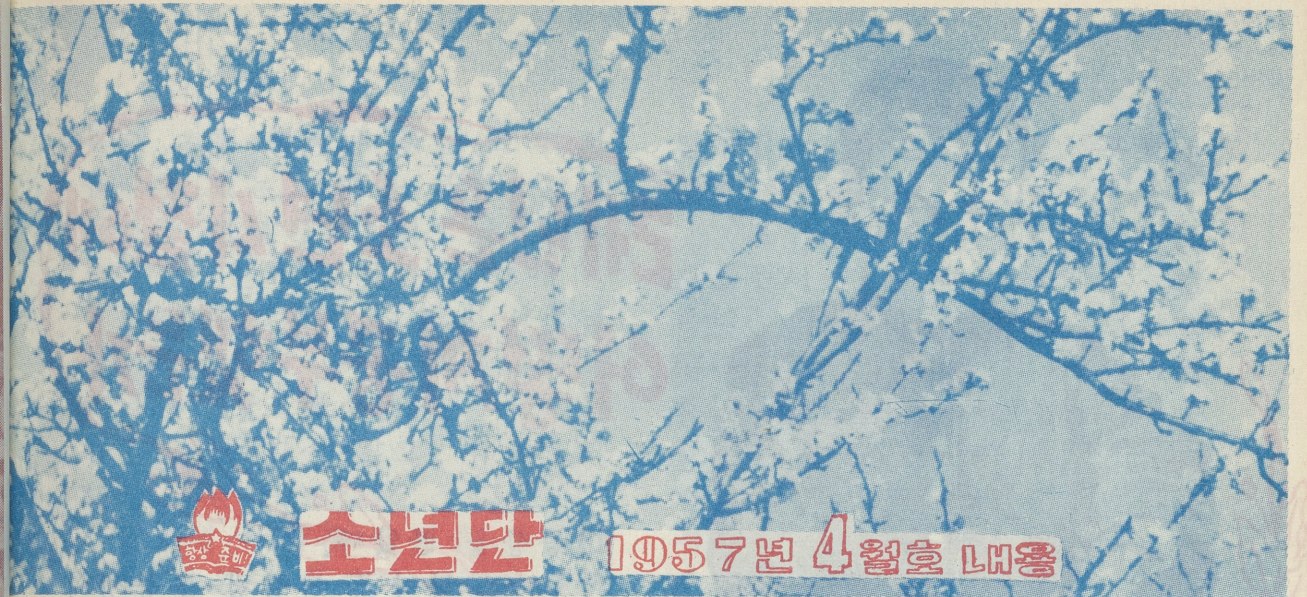
1957.4

보천보의 홰'불 정 관 철 그림

시 《백두산》에서

적은 반항도 못하고
죽고 도망치고—
류치장 지붕에선
삼단 같은 불'길이 일어 난다.
이곳 저곳 관사에서도
왜놈들 집에서도
불'길이 일어 난다.
캄캄한 하늘을 산산히 욱물어 찢어
쪼박쪼박 태워버리며.
불'길이 일더니
만세소리 터진다.
첨에는 몇곳에서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눌리우고 짓밟힌 이 거리에
반항의 함성 뒤울리거니
암담한 이 거리에 투쟁의 불'길 세차거니
흰 옷 입은 무리 쓸어 나온다——

머리 벗은 로인도 발 벗은 녀인도
벌거숭이 애들도.
절망이 잦아든 이 거리에
별천지의 화원인양 화해에
불꽃이 나붓기고
재생의 열망을 휘끗어 올리며
화광이 춤 추는데
밤바다 같이 웅실거리는 군중
높이 올라서 칼 짚고 웨치는 김 대장—
《동포들이여!
저 불'길을 보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심장은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쑤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
만세소리 집도 거리도 떨치고
화염을 따라 오르고 올라
이 나라의 컴컴한 야공을
뒤흔든다 뒤울린다!

앞표지·· 공작실에서 (남포 제 4 중) 김 창 규 촬영

소년단 1957년 4월호 내용

레닌은 소년 시절에 어떻게 공부했는가

레닌 선생은 1870년 4월 22일 볼가강 연안 소도시인 씸비르스크에서 탄생하였다.

레닌 선생의 본성은 울리야노브였고 어릴 때 이름은 월로쟈였다. 그런데 그후 혁명가가 되여서 그가 비밀 운동을 하면서 레닌이라는 꾸며 낸 성으로 글을 썼으므로 그를 그렇게 부르게 되였던 것이다.

퍽 어려서부터 민첩하고 활발하고 유쾌한 그는 요란한 유희와 달음박질을 좋아하였다.

다섯살이 되면서 그는 글 읽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씸비르스크 교회당 소속 학교 교원에게서 초중 입학 준비를 하여 가지고 만 아홉살 반이 되던 1879년 가을에 중학교(8년제) 1학년에 입학하였다.

그는 공부를 뛰여나게 하였다. 1학년 때부터 우등생으로서 웃반에 진급할 적마다 내내 1등상을 받았다.

그로 하여금 이처럼 우등생이 되게 한 것은 그의 훌륭한 재능 외에 공부에 대한 꾸준하고 주의 깊은 태도였다.

그러한 태도에는 물론 짬만 있으면 늘 무슨 일이든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범, 그리고 맏형 싸샤의 모범도 크게 안받침되여 있다.

이렇게 모든 일을 꾸준한 태도로 대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퍽 장난이 심하고 세찼지만 공부 시간에는 선생님의 설명을 꼭 명심하여 들었다.

그때의 월로쟈의 선생들이 말한 바와 같이 활발한 재주와 함께 깊이 명심하는 그 성질은 그에게 교실에서 벌써 새 과목을 잘 리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래서 그는 집에 와서 복습할 필요가 거의 없게까지 되였던 것이다.

그가 집에 와서는 숙제를 얼른 끝내고는 뛰여 다니며 장난질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때때로 그를 불러다 놓고 그의 학습장에 있는 단어를 물어 보며 학과를 검열하였으나 월로쟈는 보통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월로쟈는 공부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명심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내준 숙제는 한번도 어기지 않고 꼭꼭 하였다.

학교에서 작문 숙제를 받으면 그는 많은 동무들이 하던 것처럼 작문을 바쳐야 할 그 전날 밤에 늦게까지 앉아서 바삐 서둘러 써 버리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학교에서 제목을 알려 주고 작문을 써 바칠 기한(보통 두주일이였다)을 정하여 주면 반드시 월로쟈는 곧 착수하였다.

《아니다, 우리는 그런 길로 나가지 않을 테다》

그는 작문 첫머리와 끝맺을 내용을 미리 계획세우고는 전지 4절 종이를 길이로 절반을 꺾어 그 왼쪽 옆에는 세운 계획에 따라서 글과 수'자들을 써 넣으면서 초고를 썼다. 백지로 남겨 둔 오른쪽에는 후'날에 더 써 넣을 것, 설명할 것, 수정할 것을 써 넣었으며 작문을 바칠 날'자를 앞둔 날에 다른 백지를 가져다 준비한 많은 책들을 찾아 보고 고치면서 완전한 작문을 썼던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작문은 잉크로 공책에 옮겨 써 넣으면 되였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정성들여 지은 작문 숙제는 언제나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고 단순한 5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최5점을 받은 일이 매우 자주 있었던 것이다.

월로쟈는 항상 자기가 아는 지식은 즐겨 동무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중학교 졸업 전 전 학년에 다닐 때에 벌써 그는 자기의 학과 외에 대학 입학을 위한 중학교 졸업 검정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추와시(지방 이름) 사람인 한 교원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때 녀자 전문 학교 졸업 전 전 학년에 다니고 있는 울리야노바(레닌의 손우 누이)의 라틴어 공부를 부지런히 가르쳐 주었다.

이와 같이 월로쟈는 중학교에서 공부를 훌륭히 하였다. 늘 전 과목 5점으로 1등상을 받았고 17세에 금메달을 타고 중학을 졸업하였다.

그런데 월로쟈가 아직 16세도 되지 않았던 1886년에 아버지 일리야 니끌라예비치가 돌아 갔

고 일년 후에 또 하나의 불행이 가정에 닥쳐 왔다.

그것은 월로쟈가 사랑하는 맏형 싸샤가 인민들을 못살게 굴던 짜리 로씨야의 왕 알렉산드르 3세를 암살하려다가 체포되여 1887년 5월 8일에 사형 받은 것이다.

이때 이 불행을 당하게 된 울라지미르 일리이치는 새로운 결심을 다지였다.

《아니다, 우리는 그런 길로 나가지 않을 테다. 그런 길로 나가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그는 반드시 투쟁을 승리에 이르게 할 것이며 또 사실 승리에 이르게 한 그 길로 자기를 준비시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후 1887년 8월 까잔 대학에서 공부하게 된 그는 짜리 정부의 탄압을 반대하여 학생들의 앞장에서 투쟁하였고 놈들에게 체포되여 학교에서 출학까지 당하였다. 그러나 그의 억센 투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었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치가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절도 있게 공부하였는가 하는 것은 그의 대학 졸업 검정 시험 준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까잔 대학에 입학하려다가 끝내 거절 당한 그는 대학 졸업 검정 시험을 치루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여름이면 싸마라도에서 피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오솔 길에 자기의 공부하는 장소를 정하고 매일 아침

◇숙제하는 레닌 (중학시대에)◇

차를 마신 뒤면 꼭 책을 가득 안고 그곳으로 갔다. 마치 엄한 선생이 그를 기다리는 것 같이 정한 시간에 나가군 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점심 때 세시까지 혼자서 공부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1891년에 뻬쩨르부르그 대학에서 졸업 검정 시험을 훌륭한 성적으로 치루고 졸업장을 받았다.

이렇게 울라지미르 일리이치는 항상 책을 잠시도 놓지 않았다. 그는 온 종일 책을 손에 들고 보냈고 산보를 하거나 사업을 의논하기 위해서만 책과 떨어지였다.

그는 류형지에서도, 외국에서도 시간만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였다.

그의 누이 엠. 울리야노바는 레닌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썼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치는 타고난 훌륭한 재주가 있었지만 만일 그가 중학 시대로부터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렇게 꾸준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웨·이·레닌에 대한 가족들의 회상기 중에서)

빛나는 전망

국가 계획 위원회 부위원장 최재우

우리 나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나라입니다. 산 높고 물 맑은 우리 나라 방방 곡곡에는 귀중한 지하 자원들이 가득히 묻혀 있고 오곡이 무르익는 넓은 벌들이 수 많이 있습니다.

가고 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원쑤와 싸워 이긴 자랑 우에 복구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의 기쁨이 넘쳐 흐르고 웃음어린 얼굴에는 보다 화려한 래일을 내다 보는 행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3년이란 그리 긴 세월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짧은 사이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와 형님 누나들은 실로 많은 일을 하여 놓았습니다.

벽돌 조각들만이 딩굴어서 거치른 벌판 같던 평양시에는 넓고 곧은 대통로들이 닦아졌으며 그 량쪽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다층 주택, 학교, 영화관 등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치받들고 즐비하게 일떠섰으며 일떠서고 있습니다.

공장 굴뚝들만 앙상하게 남았던 공장 지구에서는 다시 연기가 뭉게 뭉게 솟아 오르고 거기에서는 새로운 기계들이 쏟아져 나오고 비료산이 높아 가며 옷감들이 끝없이 흘러 나옵니다.

실로 지난 3년 동안에 240여개소의 대, 중(大, 中)공업 기업소들이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여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복구 확장되였고 80여개의 대, 중 공업 기업소들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기차 자동차들은 건설장에로 건설장에로 수많은 자재들을 실어 나르며 일어서는 새집들과 학교, 병원들은 늘어가며 그 속에서 배우는 우리의 기쁨도 커만 갑니다.

3년전에 누가 이렇게 빨리 훌륭한 생활이 올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이 그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전쟁의 구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써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3년후의 오늘을 내다 보면서 이 계획을 만드셨고 그 계획을 통하여 내다 보던 앞날이 눈 앞에 나타나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3년간 우리 인민이 이룩한 이 빛나는 승리는 앞으로 우리 나라를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로, 강력한 공업을 가진 나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1차 5개년 계획 실행의 기초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여 한자리에 머물어 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란 항상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래일에 대한 희망 이것은 우리에게 새 힘을 돋구어 줍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빛나는 전망이 열리여졌습니다. 5개년이 지난 1961년에 가서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가요? 이제 그 황홀한 설계도를 펼쳐 봅시다.

※ ※

우리 나라의 산과 벌에는 많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들에 뚝을 막고 흐르는 물'결로 발전기를 돌림으로써 전기를 일으킵니다. 이 전기는 구리 줄을 타고 사방으로 흘러 갑니다. 전기만 있으면 우리는 앉아서 수백리 앞을 내다 볼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 전기 축음기, 확성기 등 등 여러분들이 늘 보고 듣는 것만 해도 전부 전기입니다. 전기는 각종 기계를 움직이게 하며 물품을 생산하게 합니다. 전기는 우리 공업 발전의 기본 동력입니다. 1961년에 가서 수풍 발전소를 비롯한 수 많은 발전소가 더욱 완비되며 확장되고 신설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장과 농촌 관개 수리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생활은 전기를 리용함으로써 더 편리하고 화려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 은, 동, 연, 아연, 철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봅시다. 우리 나라 전체 땅 속에는 금, 은 보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산들에는 거의 광석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광석의 표본실》이라고 말하며 부러워 합니다. 이 광석을 캐내여 제련소, 제철소, 제강소에 보내면 거기에서는 금, 은, 동, 연, 아연, 선철, 강재 등이 생산됩니다. 이러한 금속들은 우리 나라에서 리용하고 남어지는 외국에 팔아서 기계, 석유 등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적게 생산되는 제품을 사들이며 동은 전기 줄을 만들며 선철, 강재는 공장 건물과 다층 주택 건설에 쓰고 또한 기계 만드는 원료로도 됩니다.

1961년에 가서 1956년에 비하여 선철은 2•8배 강철은 3~3•5배 압연 강재는 3•5~4배로 그 생산이 높아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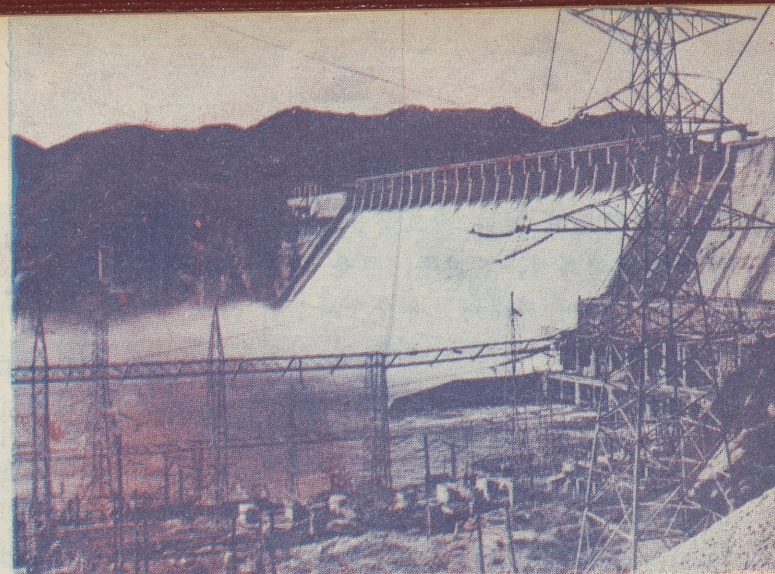
공업의 심장인 기계 공업에 대하여 말하기로 합시다. 기계는 사람의 손을 대신하여 실로 많은 일을 해줍니다.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 시대에 쓰던 베틀을 대신하여 수십배나 능률 높은 천 짜는 기계가 있으며 구두 짓는 기계, 신문, 잡지, 교과서 등을 찍어 내는 기계, 건설장에서 흙을 파내는 기계, 기계를 만드는 기계 등 지금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으리만치 많은 기계가 있어서 많지 않은 사람들로서 빠른 시간내에 보다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합니다.

일제놈들은 공업의 심장인 기계 공업을 우리 나라에 전혀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처음으로 여러가지 기계를 가질 수 있었으며 전후 복구 건설 기간에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 나라 인민들의 성심으로 되는 원조에 의하여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종 농기계, 탄광, 광산 기계 각종 모타, 변압기, 엔징, 탑식 기중기 등을 만들게 되였으며 더우기 기계들 중 가장 중요한 기계인 공작 기계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우리 손으로 생산하게 되였으니 이 얼마나 놀랠만한 일입니까. 기계 공업은 총체적으로 1956년에 비하여 5개년 계획 기간에 2배 이상으로 장성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석탄도 무진장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과 같이 공장은 석탄을 먹어야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레닌 선생은 석탄을 가리켜 공업의 빵이라고 부르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지금 조사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충분히 쓰고 남으리 만치 많은 석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석탄 데미 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석탄은 공업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들의 온돌과 뻬치까 학교 교실의 난방용으로도 많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석탄으로부터는 비단과 같은 훌륭한 천도 짜내며 의약품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귀중하고 쓸모 있는 석탄을 우리는 인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대로 많이 생산할 예정입니다.

우리 나라 화학 공업도 우리 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료, 카바이트, 가성소다, 비누 등과 각종 의약, 농약 등을 생산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흥남 비료, 본궁 화학 공장 등 큰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 공장들에서는 수많은 화학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특히 흥남 비료 공장에서는 하얀 비료산이 순식간에 생기군 합니다. 1961년에 가면 1년에 40만톤 이상의 비료를 농촌에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그만큼 더 많은 쌀을 얻어 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의 화학 공업은 가성소다, 카바이트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될 것이며 카바이트로부터는 질 좋은 옷감을 생산해 내는데 앞으로 이런 공장도 건설하게 됩니다.

5개년 전망에는 우리 인민들을 더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새집들을 속히 장만하기 위하여 벽돌, 쎄멘트를 더 많이 생산합니다. 쎄멘트는 100~150만톤 생산하자고 계획했으며, 벽돌과 기와도 지금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되여 아담하고 훌륭한 건물들이 도시나 농촌들에 화려하게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불'감, 작업복감, 양복지, 비단 옷감 등 각종 직물들을 현재보다 한배 반이나 더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누에 고치로 실 뽑는 공장도 크게 짓게 되고 뽑아 낸 실로서 아름다운 비단 옷을 짜내는 견방직 공장도 이 기간에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벼'짚, 강냉'짚, 강'가에 있는 로초로서 질 좋은 종이를 생산하게 됩니다. 갈로는 인조섬유를 만들어 천도 짜게 됩니다.

또한 우리 농촌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육류, 과실, 야채, 산채 등을 리용하여

나의 지리 공부

《인민 학교 때만 해도 지리'과에 취미를 안가지던 네가 어떻게 되여서 지력과 크루쇼크에 들었니?》. 나와 친한 동무들은 곧잘 이런 이야기를 하군 합니다.

사실 나는 늘 최우등을 하면서도 지리'과만은 재미 없는 것을 그저 덮어 놓고 따로 외우는 정도로 학습해 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지리'과를 복습하고 있는 나에게 언니가 《너 지금 외운 강과 산들을 지도에서 찾을 수 있겠니?》하고 내 앞에 지도를 펼쳐 놓아서 당황케 하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후 초급반에 진학하면서부터 우선 나는 지리'과 학습 방법을 고쳐야겠다고 결심하고 지력과 크루쇼크에 들었던 것입니다. 크루쇼크에서 처음으로 가진《지도 우에서의 려행》이라는 흥미있는 모임은 나의 지리'과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임에 참가하기 위하여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지도 우에서 각 나라들과 도시들, 강과 산맥들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복습하게 되였습니다.

이때부터 나도 지리'과에 자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방위 측정 방법이나 지구의 운행 등을 배우고서는 배운 그날로 몇 번이고 관찰하며 실험하여 완전히 리해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나는 기온, 바람, 강수, 일기, 기후 등 배운 것을 더 넓고 깊게 알기 위하여 아침과 저녁 시간 10분간을 리용하여 학교 꼬마 기상 관측소에 나가군 합니다. 내 힘으로 온도를 측정해 보며 바람 방향 등을 알아 내여 일기장에 적어 넣는 것은 더욱 흥미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이처럼 관찰하며 복습하는 과정에서 모를 것은 주저하지 않고 제때에 선생님에게 묻군 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이리하여 지난 학기부터 지리'과에 자신 있는 5점을 받으며 분단 동무들 앞에서도 나의 지리'과 학습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함북 리남시 제 3중학교 대
7분단 리 청자

각종 통조림과 기타 식료품을 만들며 해바라기, 락화생, 피마주, 콩을 가지고 기름을 더 많이 짜내며 옥수수로부터 전분과 포도당, 물'엿, 국수 등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식탁에는 보다 맛 있는 식료품이 더 많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신발도 우리에게 풍족하리만치 생산될 것인데 매인구 1인당 1년에 2•4켤레씩 차례질 것입니다.

우리 나라 동서 해안에는 맛 있고 기름 진 많은 물고기 떼가 있습니다. 1961년에 가서는 현재 생산량 보다 1•3배나 생산이 증가될 것입니다.

실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앞날은 자랑차고 행복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꽃봉오리이며 미래 조선의 주인들인 어린 여러분 앞에는 새 희망의 아침이 열리여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길이기도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우리의 아버지 형님들인 로동자 아저씨들의 억센 투지를 본 받아 우리도 씩씩하고 용감한 소년 소녀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미래 우리 조선을 금수 강산 꽃 피는 락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며 몸을 튼튼히 단련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꼬마 5개년 계획》활동에서 배운 과학 지식을 다지고 손에 익히며 파철, 파고무, 파지를 모으며 해바라기, 피마주를 많이 심는 것은 우리 앞에 열려진 빛나는 전망을 더욱 빛내게 하는 훌륭한 일입니다. 로력하면 로력한 만큼 우리의 앞날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사진은 김책 제철소 (5페지)와
수풍 발전소 (7페지) 입니다.

작문 5년간의 나의 학습

평남 양덕군 삼계 인민 학교 대 1분단 심 순옥

나는 금년에 열두살입니다.

내가 맨처음 언니의 손목을 잡고 학교에 가 입학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일곱 살 때입니다.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게 된 나는 공부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배워야 하는지 통 몰랐습니다.

내가 학교에 갔다 돌아와 책상에 마주 앉으면 어머니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제나 열심히 공부하여 최우등생이 되여라》하고 타이르시면서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야 옛날 같으면 어디서 녀자들이 다 학교 문 앞에나 가 보겠는냐》고 하시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최우등생이란 무엇이며 최우등생이 왜 좋은지도 몰랐지요.

내가 1학년에 다닐 때 나에게는 5학년에 다니는 오빠와 중 학교 1 학년에 다니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나는 공부하다가도 모를 것이 있으면 오빠에게 묻고 오빠는 모를 것이 있으면 언니 한테 묻고 하면서 우리 셋은 서로 배워 주며 배우고 하였지요. 이리하여 오빠는 국가 졸업 시험에 최우등, 나도 최우등의 성적으로 진급하였지요.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오빠와 나를《최우등생의 남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것이였지요.

이때로부터 나는 언제나 그날 배운 것을 그날로 리해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였으며 일과표를 작성하고 꼭꼭 그대로 실천하였고 꾸준히 복습을 하며 매일 선생님께서 주신 과제를 오빠와 의논하면서 해 가군 했지요. 오늘까지 나는 이렇게 학습을 해 온 결과 언제나 최우등의 성적으로 진급했지요. 지난 1•2학기에도 역시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하였어요.

나는 지난 날에 학습해 온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산수'과목은 휴식 시간과 방과 후에 선생님과 또 산수를 잘하는 동무들에게서 배우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빠의 지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인민 학교를 꼭 최우등으로 졸업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 3일 평남 순안군 구서 인민 학교 대에서는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가》라는 좌담회를 가졌다.

참가한 동무들
구서 인민 학교 대 열성자 분단 열성자, 크루쇼크 책임자, 꼬마 기술자들,
순안 제 1 중학교 대 열성자들,
순안 제 1 인민 학교 대 열성자들
순안 제 2 인민 학교 대 열성자들,
안흥 인민 학교 대 열성자들,
대양 인민 학교 대 열성자들,

참가한 선생님들
구서 인민 학교 선생님들
여러 학교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들
도 민청 학생 소년부장 선생
군 민청 위원장 선생
군 교육부 시학 선생
군 민청 학생 소년부장 선생

김 정이—지금으로부터 우리 학교 대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의논하는 좌담회를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대 위원인 한 옥희 동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옥희—우리 대 위원회는 《꼬마 5개년 계획》활동에 대한 소식을 받고 그 동안 여러가지 일들을 해 왔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소개했고 학부형들의 모임에서도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단 열성자들은 자기 분단에서 분단 동무들에게《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이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그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후 우리 대 각 분단들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또 목표를 얼마나 세우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들 했습니다.

오늘은 각 분단들에서 나온 여러가지 의견들을 들으며 우리 대에 알맞게 대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 좌담회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십시요. 특히 오늘 우리 대 좌담회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과 이웃 학교에서 온 동무들도 좋은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 줄길—내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단에서 의논할 때에도 나는 말했지만 아직 도구가 모자라는 우리 공작실에 한 가지 도구를 여러 개씩 갖추며, 못 쓰게

◇새 둥이를 올린다◇

된 도구를 고쳐 쓰기 위해서 꼬마 대장'간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 성건—(안흥 인민 학교)이 학교 대 공작실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요.

김 만순—우리 공작실에는 도구가 스물여덟 가지에 백 아홉 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들이 연구해 만든 유리 깎는 기계와 나무를 둥굴게 깎는 선반기도 있습니다.

공작실에서는 공작 크루쇼크가 사업하는 데 공작 크루쇼크는 종이, 수수'대, 수예, 목공, 토공, 철공, 나무 껍질 공작등 일곱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구가 적기 때문에 많은 동무들이 공작실로 찾아 오지만 제마음껏 실습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있는 도구의 가지 수를 더 갖출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한가지가 여러개씩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상영—공작실 도구를 더 갖추는 것은 좋지만 준길 동무가 말한 꼬마 대장'간은 소용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 중길—아닙니다, 있어야 합니다.

리 부일—협동 조합 대장'간에 부탁하거나 빌며 쓰면 됩니다. 협동 조합 일도 도와 드리고…

군 민청 학생 소년 부장—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힘에 겨운 일은 그만 두고 그만큼 다른 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가요.

박 재홍(2학년 어린 소년단원이다)수수'대 공작실에 칼이 모자랍니다. 세 사람이 한개씩 써도 200개는 있어야 합니다.

도 민청 학생 소년 부장—그것은 왜 그런가요.

박 재홍—소년단원이 600명이 아닙니까 (모두 웃음)

위 중길—재홍 동무는 잘못 생각 했습니다. 한 학급이 들어가 쓸만 하면 되지 않아요. 지금 칼이 50개나 되니까 저마다 칼을 쓸수 있어요.

박 재홍—내 칼은 잘 안 듭니다(모두 웃음)

김 영자—우리 학교 양어장엔 모두 다섯 가지의 고기가 있는데 여러가지 고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 재홍—(또 일어 섰다) 여덟가지 고기를 400마리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한 은실—많은 고기를 잡아 오느라고 힘을 넣기보다 양어장을 깨끗이 파 내고 새로 모래나 깔고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잘 보이게 하고 그 생활을 연구하면 됩니다.

조 경자—우리 학교 과수원엔 지금 양추리, 복숭아, 구타리, 사과 나무가 500그루 있습니다. 내 생각엔 이 과수원 두레에 밤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성환—(제1 인민 학교) 우리 학교 뒤에는 야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500그루의 실과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한 소녀—작년에 우리는 학교 뒤'산 엽뎍에 빈 땅이 있어서 거기에 호박을 심어 280개나 땄습니다. 우리 분단에선 이 산을 금년부터 호박산이라 이름 붙이고 한 사람이 다섯 포기씩 호박을 심고 가꾸자고 했습니다.

길 죽일—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비우지 말고 이쪽 꼬마 기상대 있는 데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재홍—아닙니다. 그쪽에는 우리 2학년 분단에서 지원군 아저씨의 묘지를 가운데 두고 화단을 꾸미고 아동 공원을 만들자고 의논했습니다.

한 옥희—며칠 전에 2학년 분단 위원장이 그렇게 하자고 대 위원장께 말했습니다. 그래 화단은 2학년 동무들이 꾸미고 아동 공원은 상급생이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길 죽일—호박산의 호박 포기 마다에는 심고 가꾸는 동무의 이름을 붙여 놓고 가을에 가서 큰 것을 딴 동무와 가장 많이 딴 동무를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소녀—가을에 가서 품평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 정이—그런데 날마다 얼마나 자라며 언제 꽃이 피며 심어 며칠 만에 열매가 맺는가 그리고 어떤 나비와 벌레들이 찾아 드는가를 관찰하고 관찰 일지에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 성환—(제1 인민 학교)우리 학교 앞 벌에는 작년 관개 공사 때 새로 쌓아 올린 동뚝이 많아졌습니다. 이 동뚝에 뽕나무를 심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누에도 많이 치게 되고 동뚝도 든든해지니까요.

전 문관— 우리도 우리 학교 앞 동뚝에 나무를 심자고 했는데 구서 민청 위원장 형님이 자기들이 심겠다고 해서 우리는 저 앞 큰 길부터 학교 교문까지 약 200m 되는 거리에 나무를 심고 그 사이 사이에는 피마주와 해바라기를 심기로 했습니다.

한 옥희—2분단 동무들은 자기들의 집 두리에 피마주와 해바라기를 50대씩 심자고 했는데 나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동무가 20대씩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울타리와 아동 공원에도 심자는 것입니다.

박 재홍—(또 일어 서자 모두 웃었다)그건 너무 적습니다. 자기 집 울타리에 빙 둘러 다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용빈—그건 너무 많은 욕심입니다. 한대를 심어도 잘 가꾸어 많이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두섭—난 해바라기 한대라도 대는 전선'대 만큼 크게 하고 해바라기 송이는 맷짝(매'돌)만큼 크게할 작정입니다. (발 돋움 해 가며 팔을 높이 추켜 드는 바람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전 문관—우리 학교 소년단 보호림에 5년 동안 나무를 2만 그루 심자고 분단 동무들이 말하는데 그건 너무 적습니다.

김 응찬—(안흥 인민 학교)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부터 자기 마을에 이르기까지의 도로에는 우리의 손으로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수수대 공작실에서◇

김 정실—우리 마을 산에는 짐승들이 적은데 모피 모으기는 어떻게 합니까?

한 옥희—토끼야 많지 않아요.

도 민청 학생 소년 부장—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지방에 없는 것을 멀리에까지 가 잡아 올 필요야 없지요. 어디까지나 자기 지방과 학교 사정에 알맞게 해야 합니다.

김 정남—(제2 인민 학교) 그럼 송진 모으기나 살구씨 복숭아씨 모으기도 없으면 하지 않는가요?.

군 민청 위원장—없는 것을 어떻게 모으겠어요.

한 재천—그래서 우리는 닭털 모으기나 하고 게사니는 없어 아니 모으기로 했습니다. 나무 종자는 이곳에 많은 오래나무씨를 모으자고 했어요. 그리고 고기비눌, 조개깍지, 동물뼈는 없으니까 안하기로 했어요.

문 용빈—작년까지 40개나 되는 새둥이를 만들었는데 새가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더 만들어 나무에 올리자는데 난 이 40개를 잘 고쳐서 새가 잘 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재홍—여름이나 가을이면 산에 가서 보물 찾기도 하고 숨박꼭질도 하는데 이런 유희를 할 때마다 나무씨 따기, 도라지 캐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 동수—(제1 중 학교) 우리는 아직도 경험을 쌓지 못한 것 만큼 어떻게 하면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더 잘할수 있겠는가를 오늘처럼 때때로 한데 모여 경험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협동 조합 일 돕기, 파리, 모기, 쥐 잡이, 파철, 누더기 모으기, 놀음'감 만들기 등 참으로 좋고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도 민청 학생 소년부장—참 좋은 의견들이 많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것은 이 《꼬마 5개년 계획》활동은 어디까지나 공부를 더 잘 하자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1차 5개년 계획을 받들고 일떠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도와 나라에 리익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할려고만 하고 학습을 게을리 하면 안됩니다. 누가 이 일을 하면서 배운 지식을 더 훌륭히 다졌는가, 새로운 것을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 누가 일을 사랑할 줄 알게 되였는가 이런데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몹시 힘에 겨운 일을 하려고 한다든가 먼 지방에까지 가서 할 일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내며 그 일들을 하면서 많이 배우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더욱 나쁩니다.

한 옥희—여러 선생님들과 어린 손님들의 좋은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였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주 모여 앉아 좋은 경험을 나누어 훌륭히 공부하며 나라 일도 도웁시다.

그럼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모임 끝에 노래 춤놀이 벌어졌고 손님으로 온 이웃 학교 동무들은 이 학교에 갖추어 놓은 공작실과 산수 유희장, 꼬마 기상대를 구경했다)

리 종 근

우리 학교의 자랑

어린 기술자들

해주 5중 학교 공작 크루쇼크원 박 진성

우리 학교 대에서 처음 공작 크루쇼크를 조직할 때에는 교실 안이 그득하게 희망자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크루쇼크실도 꾸려야 했고, 야장간을 만들기 위해 벽돌도 나르고, 흙질도 해야 했습니다. 또 여러가지 도구들도 우리 손으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크루쇼크원들 가운데는 《이게 무슨 크루쇼크냐? 재미있는 공작은 안하구 일만 하는 게》하면서 딴 크루쇼크로 가는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공, 철공, 야장, 토공 공작 등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그 부문에 따라 크루쇼크반을 다시 조직할 때에는 불과 20여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공작 크루쇼크원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꾸준히 노력하여 도구들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여러가지 목수 도구들을 제외하고도 후원 단체에서 또는 학부형들이 가져다 준 볼반, 바이스, 목기 선반, 철판 재단기, 금속 용해기 등 부러울 것이 없이 갖추어졌습니다.

이제는 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충분히 실습할 수 있게 되였고, 제법 기술자들 처럼 설계도를 그려서 여러가지를 만들어 봅니다. 수학을 싫어하던 동무들은 보드, 나트, 백엽상 등 설계할때 몹시 애를 썼습니다. 다른 동무들은 척척 계산을 잘 하는 데 그들에게는 계산이 힘들었으니까요. 우리는 실습을 거듭하는 동안에 수학은 우리 생활과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였으며 두리반, 밥통, 백엽상, 보드, 나트, 부삽, 불집게, 문고리, 접철 등을 훌륭히 만들어 내게 되였습니다.

처음에 시시하다고 크루쇼크에서 나갔던 동무들도 지금은 다시 크루쇼크에 들어 왔습니다.

슬기로운 아동 혁명단원들

◇김 영 수◇

1933년—이 시기는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대원들이 주로 유격 근거지를 지켜 싸운 때이다.

그때의 큰 전투 임무는 적을 무찌르는 것, 그리고 적의 무기를 빼앗는 것, 유격 대원들을 늘구는 것 등이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방 인민들과 련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한 일이였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사업들을 당시 항일 빨찌산 아동 혁명단원들이 적지 않게 감당하였다.

그들은 비록 어린 전사들이였지만 용감하였다.

1933년 4월.

소왕청(小汪清) 유격 근거지 방위 전투에서 아동 혁명단원들은 유격대원들의 뒤를 따라 용감하게 싸워 큰 공을 세웠다. 소왕청은 동만 일대에서 유격 근거지로 이름난 지대이며 항일 유격 근거지가 제일 처음 생긴 곳이다.

* *

4월 16일.

이날도 나무'군으로 차림한 아동 혁명단원들은 두 세명씩 떼를 지어 벌목 공사장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적의 활동을 살필 임무를 띠고 떠났다. 벌목 공사장은 적 병영 부근에 있었다.

소왕청 부락에서 멀리 벗어 났을때 해는 한발 밖에 남지 않았다. 찬 바람이 쌀쌀하게 불기 시작한다.

소년단원들은 목적지를 향하여 산 굽이를 벌써 네 굽이나 돌았다. 해가 산마루에 깃들고 어둠이 오자 소년단원들은 걸음을 빨리하였다.

우뚝 솟은 뒤'산 좌우로 내려 뻗은 나즈막한 산 기슭 좁은 길로 나섰을 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길다란 귀틀 집 한채가 눈에 띄였다. 이 집이 바로 벌목 공사장 사무실이다.

아동 혁명단원들은 정찰 공작을 개시하였다.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착 엎드려서 귀틀 집을 향하여 좁혀 들어 갔다.

사방은 고요했다. 벽 창문'가에 바싹 다가선 아동 혁명단원들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모든 신경은 귀뿌리에 집중되였다. 놈들은 빨찌산 부대와 일본 군경들이 싸우던 이야기를 한창 떠버리고 있었다. 아동 혁명단원 두명은 벽에서 좀 떨어진 언덕 밑에 몸을 숨기고 망을 보았고 한명은 벽에 착 붙어서 놈들이 짖어대는 마디마디를 귀'속에 담아 들었다.

바로 이때 별안간 방안에서 투다닥하는 요란한 구두 소리가 들렸다. 방안은 갑자기 물 뿌린듯 조용해졌다.

그리더니 한놈이 큰 소리로 짖어댔다.

《이 밥통들아！…멀하고 있는거야…래일 새벽에 일본 토벌대가 4,000명이나 온다고 통지 왔어… 부락에 내려가서 갑장(부락 책임자)놈을 끌고 와！소 다섯 마리, 돼지 열 마리, 닭, 계란 할것 없이 몽땅 거둬 가지고 오란 말이야… 빨리 빨리 준비하란 말이야. 바보 같은 새끼들…》.

그놈의 큰 호통 소리가 끝나자 그곳에 모였던 놈들은 부시시 흩어졌다.

아동 혁명단원들은 이 새로운 정보를 귀담은 채 단숨에 소왕청 유격 근거지로 달려 왔다. 그리고 빨찌산 대원들에게 자세히 알려 주었다.

김 일성 원수는 사방에 정찰 보냈던 여러 공작원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연구해 보고 벌써 놈들이 소왕청 유격 근거지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였다.

빨찌산 부대들은 전투 준비를 완료하고 놈들의 진공을 대기하고 있었다.

바로 그 이튿날 17일 아침 적들은 3,500여명의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유격 근거지로 기여 들고 있었다.

적들은 대왕청으로부터 1,500여명, 대두거우 지구에서 1,000여명, 가야하 방면에서 1,000여명, 이렇게 3개 방향에서 포위 작전을 해 보려고 소왕청을 향해 진격을 개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 일성 원수는 적들의 진격에 앞서 각 부대들을 요소 요소에 배치시켰다. 즉 사면 고지에 전투 배치를 완료시키고 부락내의 주민들과 함께 아동 혁명단원들도 안전한 지대로 올라가게 하였으며 대피할때 쌀 한알, 바늘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감출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아동혁명단원들은 산으로 대피할 것을 거절해 나섰다. 기어코 전투에 참가하겠다는 것이였다.

김 일성 원수는 재차 아동 혁명단원들에게 이번 전투는 적들이 많은 병력을 들여댄만큼 전에 비하여 전투가 세찰 것이라고 말하시면서 대피할 것을 권고하시였다.

이 말을 들은 아동 혁명단원들은《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안전한 지대에 옮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야 어디 싸움을 한 두번 겪어 본 사람들입니까, 더구나 아버지와 형님들이 싸우는 판에 안전 지대에서 죽은 사람처럼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다 못해 탄알이 없으면 돌을 굴려서라도 놈들을 잡아야 하겠습니다！》라고 간청하였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인가！

김 일성 원수는 원쑤를 미워하는 이 어린 전사들의 뜨거운 마음들을 꺾을 수는 없었다. 이리하여 그 중에서도 제일 나이 많고 건강한 아동 혁명단원들만 선발하여 탄약 운반과 통신 공작을 담당케 했다.

소왕청 유격 근거지는 긴장에 싸였다.

고요한 밤 하늘 별빛만이 반짝이고 전호 속에서 원쑤를 노리고 있는 대원들의 심장들은 모닥불처럼 증오에 타 올랐다. 부녀회원들이 만들어 놓은 식사를 아동 혁명단원들은 재빠르게 고지에 운반하였다. 로인들은 달빛을 리용하여 고지 앞에 돌무데기를 쌓아 올렸다.

벌써 앞 마을 첫 닭 우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 온다.

먼동이 틀 무렵 적들은 삼면으로 포위 진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보초선에서 적의 래습을 알리는 라팔 소리가 삼면에서 들려 왔다.

안개가 자욱히 끼였다.

적의 선두 부대는 미친 개 무리처럼 고지를 향해 기여 오르고 있다. 적들은 고지의 중턱에까지 오르자 맹 사격을 시작했다.

유격대원들은 김 일성 원수의 사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적들은 유격대가 총 한방 쏘지 않고 잠잠하고 있으니까 더 흥이 나서 빠른 속도로 기여 들고 있다.

이때 지휘부에서 김 일성 원수의 거세인 싸창(김 일성 원수께서 항상 휴대하고 전투를 지휘하실 때 사용하시던 권총)이 사격 명령의 불'길을 토하였다.

적을 눈 앞까지 접근 시켜 놓은 유격대원들은 일시에 놈들의 심장을 겨누어 불벼락을 퍼부었다.

삼면 고지에 자리 잡고 있던 기관총 부대들은 산마루 길목 좌우로 기여 드는 적의 주력 부대에게 한바탕 불벼락을 들어 답새였다.

고지에로 기여 들던 놈들은 개미떼가 흙사태에 깔리우듯 무데기로 쓰러졌다.

놈들은 산산히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래 병력이 우세한 적들은 산넘어 골짜기까지 퇴각하였다가 죽어 넘어진 자기들의 시체와 넘어 쓰러진 통나무들을 의지하며 또다시 기여들기 시작하였다.

유격대원들은 적들이 재차 공격을 시작하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이번에는 놈들을 좁은 골짜기에 몰아 넣고 또다시 불벼락을 퍼부었다.

그러나 놈들도 만만치는 않았다. 놈들은 원거리에서 각종 포를 동원하여 고지에다 맹사격을 가하였다. 자기들의 돌격대의 진격을 쉽게 하자는 것이였다. 놈들은 더욱 결사적으로 기여 오른다.

바로 이때 아동 혁명단원들은 무데기로 쌓아 놓았던 바위'돌을 굴리기 시작하였다.

돌은 곤두박질을 치면서 산 아래로 굴러 내렸다. 총을 추켜 들고 기여 들던 놈들은 피할 사이도 없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여 쓰러졌다.

적들은 또다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아동 혁명단원들은 죽어 쓰러진 추악한 적의 시체 곁으로 기여가 여러 자루의 보총과 탄약들을 빨찌산 대원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리하여 적들은 무려 네번이나 기여 오르다가 죽엄의 데미를 이루었다. 겨우 살아 남은 놈들은 어둠을 리용하여 도망치고 말았다.

이와 같이 하여 전투는 이날 하루 종일 진행되였다. 이 전투에서 놈들은 수백명의 시체를 남기였고 수십명은 포로되였다.

소왕청 유격 지구는 항일 빨찌산 부대의 승리의 만세 소리로 들끓었다.

아동 혁명단원들은 두손을 하늘 높이 추켜 들고 힘차게 만세를 불러댔다.

소설

창호의 그림

김성춘

그림 림영환

창호가 거리의 학교에서 이 촌 학교로 옮겨 온지는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습니다.

창호는 용민이의 이름을 맨 먼저 알게 되였습니다.

그것은 새로 이사 온 창호의 집 처마에 잇닿아 용민이네 집이 있었으니까요. 《참 용민인 왼 팔에 빨간 줄이 간 소년단 열성자 표식도 달았더라!》. 이렇게 이사 온 첫날부터 말씀하시던 어머니는 지금도 곧잘 용민이만 추켜 드는 것이였습니다.

《그앤 공부도 으뜸가게 잘 하구 그림도 아주 썩 잘 그린대, 너두 이젠 중학생이 아니냐. 정신 차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모를 건 용민이한테 묻기두 하구》.

그러나 어머니의 이 말씀이 창호의 마음을 언짢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양에 공부하려 가신 후 어머니의 타이름이 찾아졌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호는 남들이 듣지 않는데서라면 몰라도 용민이서껀 동무들 앞에서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딱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옆구리를 쿡 찌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긴 이곳 동무들이야 지난 날의 창호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지요. 창호에게 어떤 버릇이 있고 어떤 별명을 부쳤던지도 이곳 동무들은 알 리 없습니다. 창호는 산수 숙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는 용민이를 찾아 가기는커녕 그런 내색부터 내지 않았고 도화에 5점을 받아 본적이 없다는 걸 입밖에 내지부터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호는 용민이와는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동무들에게서 위신이 있는 용민이는 창호를 아주 친절히 대해 주었으니까요. 그래 창호는 학교에 가고 올 때면 의례 용민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걷는 것이였지요.

그날도 창호는 용민이와 함께 언덕 길을 오르며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 오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두 팔을 쑥쑥 저으며 용민이에 앞서 언덕 길로 마구 올라 가는게 퍽도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것은 창호가 오늘 마지막 공부 시간에 시를 멋지게 읊어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언덕 길을 다 오른 용민이와 창호의 눈앞에는 기차가 연기를 뿜으며 산'구비를 돌아 가고 있는 것이 한폭의 그림처럼 바라 보였습니다. 둘은 기차가 산'구비를 돌아 숨어 버릴 때까지 걸음을 멈추고 바라 보았습니다.

《참 너 그림 그리기에 취미가 있니?》.

발'걸음을 떼며 용민이가 창호에게 물었습니다.

《응? 그림 말이야!》.

하고 주츰했던 창호는 《그럼, 그림 그리긴 참 재미 있지! 난 크레용으로 그리긴 이젠 싫증이 났어. 수채화를 그려야 멋진게 되거던!》.

하며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창호는 전에 없이 책상 설합에서 도화 용지와 수채 화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선 창호의 발'걸음은 정거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호는 정거장 창고 곁에 가 자리를 잡고 도화지를 펼쳤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온 세상에 밝은 금'빛을 뿌려 주고 그 빛이 가려진 곳에는 거므스레한 그림자가 덮인게 그림 그리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창호는 우선 연필로 종이에 쓱쓱 선을 옮기며 역에 머물어 있는 렬차의 기관차부터 그려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잘 되여지지 않습니다. 새 종이에 다시 그렸으나 기차는 정말로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교실 뒤'벽 《우리들의 작품판》에 나붙은 용민이가 그린 기차에 대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창호는 안타까왔습니다. 연필도 놓고 기차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였습니다.

《학생 동무, 그림이 잘 되여지지 않는 모양이군?》. 돌아 보니 어느새 와 있었는지 곤색 양복을 입은 철도 종업원 아저씨가 곁에 와 있는 것이였습니다.

창호는 잘 그려지지 않은 그림을 앞에 놓고 부끄러워 손을 뒤통수에 가져 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기차 그리긴 어려운데요》.

창호의 손에서 연필은 그 철도 아저씨의 손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 아저씨는 그려지는 그림과 기차를 번갈아 보며 한참 연필을 놀립니다. 점점 기차는 정말로 제 몸집을 종이 우에 드러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뒤로 나붓기는 연기까지 그려 넣으니까 그것은 정말로 칙칙 폭폭 힘차게 달려 가는 기차였습니다.

《자 이젠 훌륭한 기차가 되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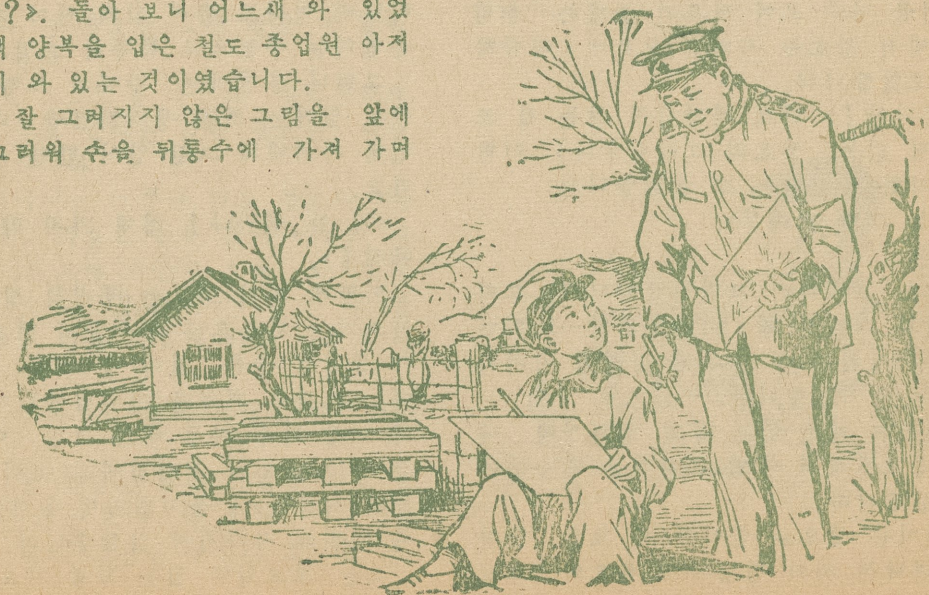
《네 참 잘 그렸어요!》. 창호는 큰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아저씨는 그림을 멀찌감치 내들고 눈을 가늘게 해서 다시 보더니 창호의 손에 그 그림을 넘겨 주었습니다.

《어디 이 본때로 한번 그려 보지!》.

《네!》.

창호는 힘있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창호는 다시 그려 볼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정거장 사무실 쪽으로 가 버리자 창호는 그만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창호는 그 그림에 붓을 적시여 가며 수채 화구로 색칠을 하였습니다. 기차는 더 돋우라지게 종이에 나타났습니다

다. 창호는 책상 마즌 벽에 압정을 눌러 그 그림을 붙였습니다.

바로 이때 용민이가 창호를 찾아 왔습니다. 방에 들어선 그는 책상 웃벽에 붙은 그림을 보자 눈을 떼지 못합니다.

《거 참 잘 그렸는데! 정말 막 달려 가는 기차야!》.

이렇게 거듭 말하고야 눈을 창호에게 돌리며 물었습니다.

《이 그림 네가 그린거냐?》.

자기를 마주 보며 저으기 놀래는 용민이 앞에서 창호는 자기도 모르게 히죽히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하고 대답하지 않는 걸 보아 틀림 없는 창호의 그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용민이는 또 물었습니다.

《오늘 그린 거냐?》.

《응?》.

창호는 고개까지 끄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차 그리긴 패 어려운거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애써 그린 것처럼 시치미를 떼는 것이였습니다.

용민이는 래일 방과 후에 정거장에 나가서 창호에게서 그림 그리기를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용민이는 집으로 돌아갈 때 고급 중학교에 다니는 자기 형님에게 창호의 그림을 자랑하겠다면서 들고 갔습니다.

이튿날이였습니다.

창호는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마음을 가다듬지 못했습니다. 용민이가 어제 말한대로 자기를 끌고 정거장에 그림 그리러 나가자고 덤비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였지요.

아니나 다를가 수업이 끝나자 용민이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집에 가서 도화 준비를 해가지고 곧 정거장에 나가자!》.

야단이 났습니다. 같이 정거장에 나가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호의 그림은 그 자리에서 폭로될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그 철도 종업원 아저씨가 창호를 알아 보고 《야 어제 그림 그리던 학생이로군! 참 열성적이야! 그런데 내가 그려준 것 만큼 그릴 수 있겠던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난 지금 막 으시시 추워나는게 못견디겠어!》.

창호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하고 정말 갑자기 오한이라도 나는듯 이마'살을 찡그리는 것이였습니다.

용민이는 이 말에 그 큰 눈을 의심스레 깜박일 뿐입니다. 하긴 이상한 일입니다. 바로 한시간 전 점심 시간에만 하여도 창호는 운동장에서 뽈을 힘있게 찼을 뿐만 아니라 머리로 솜씨 있게 받아 제끼는 걸 용민이는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그러나 용민이는 갑자기 오한이 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몇달 전에 자기에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으니까요.

《거 안 됐구나! 집에 가서 약을 먹어야지!》.

이렇게 돼서 창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동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려도 문을 열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괴로운 일이였습니다. 더우기 《참 봐두 봐두 네가 그린 이 그림은 걸작이야》 하며 선생님에게 보이고 《우리들의 작품판》에 붙이겠다던 용민이의 얼굴이 떠올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토요일에 있는 학급 자모회를 앞두고 벽보 주필인 용민이는 새로 갈아 붙일 그림들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 그림이 거기에 나붙으면 동무들이 다 볼게고 또 자기 그림 실력을 잘 알고 있는 어머니도 볼게 아닙니까. 정말 딱한 노릇입니다. 전 학교 때처럼 자기를 잘 아는 동무들이라면 거짓말이 발로될 무렵 실토를 하고 창피를 웃음으로 모면할 수도 있으련만… 창호는 용민이 앞에서는 사실을 고백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사실대로 말한다면 용민이는 펄쩍 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숨길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채 창호는 용민이와 헤여져 집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편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평양에 가 계신 아버지께서 온 편지였습니다.

창호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참 너 아버지한테 편지 쓴지두 오랬구나》.

창호는 어머니의 이 말씀에 당장 아버지에게 편지를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솟아 났습니다. 창호는 그 그림 생각도 또 다른 모든 생각도 잊고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아버지 안녕하시다니 참 기쁩니다. 어머니도 저도 아무 마음 걱정 없이…》

여기까지 쓴 창호는 그만 펜을 더 놀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창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머니는 그렇다 해도 창호의 마음이야 아무 걱정도 없는 것이 아닌게 아니예요. 그 그림 때문에 오는 토요일에 자모회가 있다는 것도 어머니에게 곧 알리지 못하고 마음 괴로와 하는 창호가 아니예요.

창호의 손에서는 펜이 저절로 떨어졌습니다.

창호의 눈 앞에는 요즘 그림을 두고 벌어진 일이 하나 하나 눈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년단 열성자 표식을 단, 어머니가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용민이의 얼굴이 어쩐지 퍽도 다정스럽게 떠오르는 것이였습니다.

참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앞에서 또 그 철도 아저씨 앞에서도 부끄러울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창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 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민망스럽게 생각되였습니다.

창호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편지는 다시 씌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가? 책상에 앉았던 창호는 부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오는 토요일에 자모회가 있다구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꼭 가야 해요!》.

어머니의 되묻는 소리를 듣기도 전에 창호는 자리에서 후닥 일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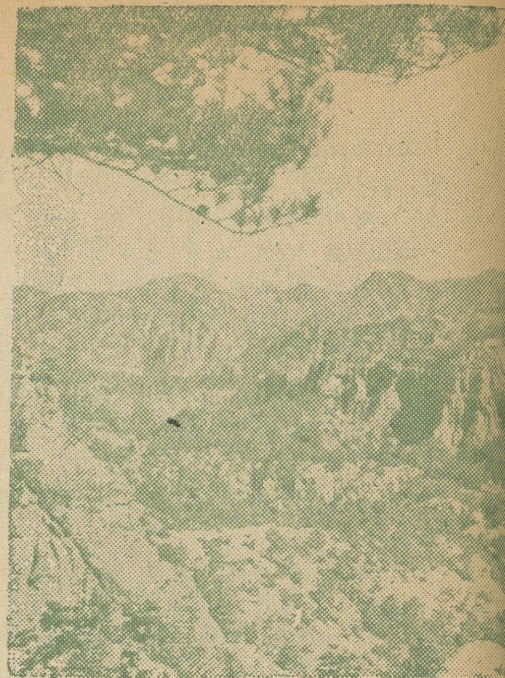
창호의 얼굴에는 기쁨이 꽉 피였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내여 무엇을 결정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그러한 기쁨이였습니다.

창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문을 열었을 때에는 다만 쓰다 만 편지가 책상 우에 놓여 있을 뿐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용민이를 부르는 창호의 애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자랑 보 산

칠보산은 함북의 금강으로 불리우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 명산의 하나이다.

함경선 고참역에서 동쪽으로 약 40리 가량 떨어져 있는 칠보산은 내칠보의 오봉산과 내칠보를 둘러 싼 외칠보의 련봉 그리고 동해에 잇닿은 해칠보로 나누어진다.

내칠보의 오봉산은 마치 난가리 모양으로 생긴 로적봉과 종을 거꾸로 달은 듯한 종각봉, 수천명의 협주단이 저마다 악기를 들고 무대에 오른듯한 라한봉과 천불봉, 수만 마리의 사자가 머리를 모으고 앉

은 듯한 일만 사자봉 등 봉우리들을 말한다.

내칠보에는 또한 여러가지 아름다운 모양을 이룬 봉우리들 외에 제자굴, 금강굴, 지옥굴 등 천연 동굴도 있으며 금강담, 구룡 폭포 등 아주 훌륭한 경치도 있다.

외칠보는 내칠보에서 해칠보로 내려 가는 40리 길을 따라 좌우편에 높이 솟은 기묘한 산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상치봉, 장준암, 학무대, 만물상 등은 그 모양이 매우 묘하고 아름답다.

해칠보는 황진항에서 남으로 포하 고진항에 이르는 20km 해안을 따라서 깎아 세운듯한 절벽과 바다의 돌섬들로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화폭을 이루고 있다. 해칠보에는 선녀들이 놀러 내려 오던 문이라는 전설을 가진 강선문이 있다. 그리고 몽문암 일대의 소나무 풍경과 솔밭 푸르고 갈매기 나르는 송도 풍경이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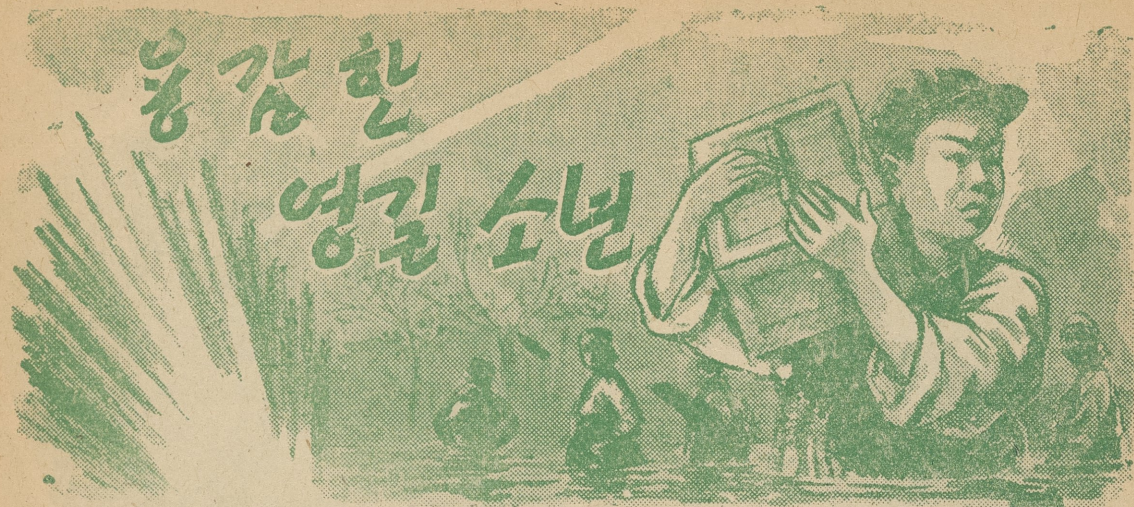
칠보산은 이렇듯 기묘한 생김과 아름다운 경치를 이룬 명승지로서만 이름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일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의병 투쟁과 왜놈들을 반대한 명천 농민 폭동의 근거지로도 이름이 높으며,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는 리태진 소년을 비롯한 소년 빨찌산들의 투쟁 근거지로 되였던 곳으로 그 이름이 높다. 또한 이 부근 땅 속에는 석탄을 비롯한 금, 은, 동, 철 등 보물들이 많이 묻혀 있고 땅 우에는 나무, 약초 등 인민 경제 발전에 쓰일 수 많은 보물이 있는 점에서도 칠보산은 유명하다.

↑내칠보의 구룡폭포

↑로적봉과 내칠보

↓외칠보의 만물상

←해칠보

개심사의 약밤나무

◇신 동 철◇

월비산에는 불'길이 하늘에 닿을 듯 일어나 밤 하늘을 환하게 비치고 있다. 저 불 속에서 인민 군대 아저씨들은 어떻게 싸우나?— 영길 소년은 이렇게 생각하며 놀란다. 그렇지만 순학리 사람들은 포탄이며 수류탄, 그리고 밥까지 지어 가지고 메고 지고 남강을 건넌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 올 때엔 담가에다가 부상병들을 눕혀 가지고 30리'길 야전 병원으로 날라 가군 한다.

영길 소년도 남강에 들어 섰다. 건너 오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너 어딜 가니?… 포탄이 막 날아 드는데».

그러나 영길이는 아무 대'구도 없이 탄약통 하나를 메고 허리를 넘는 물 속에 들어 섰다.

텁석부리 한 할아버지가 꽥 소리를 쳤다.

«이 녀석 가다가 물에 빠져 죽던지 포탄에 맞을라, 썩 나서라».

«왜, 그리세요. 일 없어요».

영길이는 이렇게 대'구 질을 하며 제 고집대로 건너기 시작하였다.

물이 어깨까지 올 때에는 몸이 뜰 것이였지만 탄약통 때문에 물'살에 밀릴 정도이다. 그러나 남강 마을에서 자라난 영길이는 헤염치기도 잘하고 매생이 쯤은 아주 솜씨 있게 부릴 줄 알고 있어서 물에서 조금도 덤비지 않는다.

옷이 홍 젖었으나 이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영길이는 탄약을 접수하는 곳까지 내 뛰였다. 달려 가다가도 어디선가 꽝! 하는 소리가 나면 제 정신 없이 풀밭에 꿩의 새끼처럼 들어 배키군 하였다.

목적지까지 다달은 영길이는 숨이 턱에 닿아서 헐레벌떡거렸다.

탄약을 접수하는 인민 군대 아저씨는 영길이를 보자 두 눈이 어찌나 커졌던지 까만 동자가 허연 자위 한 가운데서 콩알 만큼 돼 보였다.

«아니, 요 꼬마가 어떻게 강을 건너 왔을가?».

영길이는 탄약통 하나를 내려 놓고 그 아저씨를 뚫어지게 쳐다 보면서 말했다.

«뭐, 아저씨는 내가 못 건널 줄 알우».

이때 바로 근방에서 미국놈들이 쏘아대는 포탄이 캬강 꽝! 하고 터졌다. 그리자 모진 바람이 아저씨와 영길이를 후려 갈겼다. 흙과 먼지를 뒤집어 쓴 아저씨는 영길이를 가슴에서 풀어 놓으며 «인젠 못 간다. 나와 같이 이 음페호에 있자구나»하였다.

그러나 영길이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리고 뛰쳐 나오려고 하였다. 아저씨는 약간 노염이 섞인 말투로 말했다.

«넌, 왜 말을 듣지 않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고집만 부리라고 가르쳐 주던?».

«그래요. 이걸 놔요»하고 영길이는 아저씨의 손을 뿌리쳤다. 그러나 큰 집게 같은 아저씨의 손아귀는 영길의 팔을 놓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저씨가 다소 눅으러들며 달래기 시작한다.

«그래, 그 선생님의 이름이 뭐냐?».

아저씨는 이렇게 묻는다.

«김 초희예요».

영길이는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떡끄떡하더니 미소까지 짓는다.

«이것 봐, 꼬마 동무, 우리가 순학리에 와 있을 때 나두 그선생님을 잘 알아, 이담에 선생님을 만나면 꼬마 동무가 말 잘 듣더라구 말할게… 날 앨 먹이지 말구 여기 가만 있어».

영길이는 이 말에 그만 말도 못하고 눈가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아저씨가 멋도 모르고 달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잠자쿠 있었다. 그제사 아저씨는 팔을 놓아 주고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이 또 잇닿아 왔다. 아저씨는 탄약을 받아 드리기에 바쁘다.

사람들은 바삐 바삐 숲속 길을 빠져 나간다. 영길이는 바로 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숲속 길로 가고 싶은 것이다. 그리로 가면 부상병들을 메여 나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이 멜 사람도 없고 또 자기 힘으로 멜 수 있겠는가?—하는 것도 의문이였다.

영길이는 «에라 돌아가서 탄약이나 더 나르든지 포탄이라도 하나 더 나르자»하고 마음 먹었다.

아저씨가 음페호 문 어구에 떡 버티고 서서 빠져 나갈 틈바구니가 없다. 할 수 없이 영길이는 한 꾀를 생각해 내였다.

«아저씨!»이렇게 불렀다.

«왜?»아저씨는 돌아다 보지도 않고 대답한다.

«여기서 자도 좋아요?».

«좋아!».

아저씨는 어디까지나 조심성 있으면서도 능청스럽게 대답하는 것만 같다.

영길이는 뜸했다가 다시 물었다.

«오즘 보구 돌아 올게요…»하며 나가려 하였다. 아저씨는 비켜 서면서 손목을 덥석 잡았다.

«아무 데나 가서 오즘 누다간 큰 일 나 이리 와». 아저씨는 영길이를 데리고 바우'돌 뒤로 왔다.

영길이는 하는 수 없이 음페호에 다시 들어 와 자는척 했다.

월비산 쪽에서는 총소리가 뜸해졌다. 밤은 어지간히 깊었다.

사람들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부지런히 포탄이며 탄약이며 음식들을 운반해 왔고 또 부상병들을 날라 갔다.

아저씨는 몹시 분주하였다. 그러나 짬만 있으면 들어 와서 영길의 얼굴에 귀를 갖다 대여 보군 한다. 이럴 때마다 영길이는 일부러 코를 가랑가랑 고는 척 했다. 아저씨는 혼자'소리로 «에이, 앨 먹이더니 잠이 들었군…»하면서 나갔다. 영길이는 그 소리를 다 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킥 웃었다. 하마트면 소리까지 나갈번 하였다.

영길이는 가만히 일어났다. 고양이처럼 발 걸음 소리 나지 않게 음페호 문어구로 기여 나왔다. 아저씨는 포탄 음페호에 전사들과 함께 분주히 들락날락하면서 자지 않고 있다.

영길이는 깜쪽 같이 풀 뒤에 숨어서는 정찰병처럼 몰래 내 기였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자신이 있었다. 벌써 멀리까지 왔는데두 아저씨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한참이나 내 빼다가 막 달음질 쳤다.

강'가에 다달았다. 이때 미국놈들이 불

시에 포사격을 들여대였다. 주위 사방에서 불광이 번쩍번쩍하더니 그르르르 콰광 캉캉…하고 온 산을 울리며 땅을 흔들었다.

강물은 기둥처럼 일어섰다가는 처절썩 쓰러지군 한다.

영길이는 강물에 뛰여 들자 헤염치기 시작하였다. 멀리서 폭발 소리가 나면 물'속에 쑥 들어 배키기도 하고 숨이 가쁘면 내뿜기도 하면서 넓은 강을 헤염쳐 건넜다. 강뚝에 기여 와 보니 달구지가 있다. 그 달구지는 채가 부러지고 소와 사람들은 오간데 없다. 달구지에 실은 포탄은 와르르 쏟아져 내려 왔다.

영길이는 생각했다. 《아마 소와 사람은 상한게로구나… 포탄이 튀질 않기루 다행이지…옳지 이걸 전부 메여 나르자》. 영길이는 이렇게 결심했다.

놈들의 포성은 한동안 또 뜸해졌다.

영길이는 무거운 포탄을 한개씩 메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강 마즌 쪽에는 작은 숲이 있다. 영길이는 날이 훤히 밝을가바 젖을 먹으며 있는 힘을 다해 포탄을 날랐다.

벌써 숲 속에는 열개의 포탄이 쌓였다.

열한번째 포탄을 나르려 했을 때 사람들이 달려 왔다. 한 아주머니가 선참 말했다.

《영길이냐? 넌 여기서 뭘 하니?》.

《왜요, 나두 포탄을 날라요》.

영길이는 툭명스럽게 대답했다.

《잘 했다 잘했어, 인젠 그만 해, 우리가 나를게》.

아주머니는 영길이에게서 열한번째의 포탄을 빼앗아 냈다. 한 일여덟명의 녀맹원들은 한꺼번에 두개씩 이고 강을 건넜다. 영길이는 빈 손으로 다시 강을 건넜다. 그래서 숲속에서 포탄 하나를 메고 음폐호를 향해 아주머니들의 뒤를 따랐다.

놀라고 성이 난 것은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영길의 찢어지고 젖은 옷자락이며 맥이 진하여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영길이를 보고 어이가 없어 멍하니 서 있더니 와락 끌어 안았다.

《영길아! 넌 왜 날 속였니? 응? 선생님이… 저 김 초희 선생님을 만나며는 말해 줘야겠다. 아저씨의 말을 안듣는 영길이를 책망하라구…》.

영길이는 그만 으흐흑 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그만 당황해 났다.

《영길아, 내가 괘니 그랬어, 말 안할게 울지 말어, 온밤 포탄 나른 용감한 소년이 짬 터에서 울면 되나! 그만 뒤…》.

영길이는 울음을 뚝 그치였다. 그리고 말했다.

《아저씨 일러 바쳐두 좋아요. 그러나 저는 초희 선생님의 복쑤를 해야 겠어요》하고 눈물을 씻으며 내 뛰였다.

아저씨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제사 용감한 소년의 뜻을 알아 차리고 한 전사를 뒤 따르게 했다.

공장에서 온 편지

갈 세대가 학습장 한권

지금 동무들이 쓰고 있는 학습장의 얇은 종이는 박엽지라는 종이다.

학습장 한장 크기의 종이를 32매 낼 수 있는 박엽지 한장의 무게는 32g이며 갈(로초) 한대의 무게는 보통 30~35g이다. 무게로는 거의 같다. 그러나 박엽지를 한장 만들려면 갈 세대가 든다.

지금 갈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고 있는 신의주 팔프 공장 로동자 아저씨들은 이처럼 귀중한 갈을 금년에 488톤 절약하겠다고 한다. 그러기 위하여 갈을 운반할 때 흘리지 않도록 힘쓰며 또 흘어지는 갈도 모으고 있다.

488톤의 갈이면 32매짜리 학습장 1,525만권을 만들 수 있다.

적은 것을 절약하지만 모으면 이처럼 많은 것이 된다.

로동자 아저씨들은 동무들을 위하여 한대의 갈이라도 아끼여 종이를 더 많이 만들고 있다.

신의주 팔프 공장 기술 부장 김 정식

늘어가는 자랑

《애! 애 이리 다우》.

《에잉 참! 애두》하고 정자 동무는 볼멘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치다 말고 얼굴이 빨개서 투덜투덜 했습니다.

《흥, 제대루 던지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는 자기 앞에 떨어진 뽈을 얼른 받아 상대편 동무들을 맞히려고 애쓰는 박 명자 동무를 비웃으며 나무람하는 것이였습니다.

▲박 정 렬▲

정자 동무는 늘 투피구 할 때마다 동무들 앞에 오는 뽈도 자기가 가로 채서 독판치는 버릇이 있었으니까요.

이날도 의례히 자기에게 뽈을 보내 주리라고 믿었던 그는 한참 우두커니 섰다 말고 《그럴테면 너희끼리 실컨 해 보렴, 저두 난 몰라》하며 뽀르퉁해 가지고 동무들 틈에서 빠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애 정자야!》한참 신이 나서 투피구 경기를 하든 도중이라 동무들은 정자 동무를 안타까이 불렀습니다.

《저 앤 왜 저럴가》.

《우리 분단이 지면 어쩔라구 저 앤…》.

뒤숭숭 해지고 나니 뽈에는 정신을 덜 돌리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4분단과의 투피구 경기에서는 3분단이 지고 말았습니다.

《늘 이기던 우리 분단이 진 것은 참 분한 일이야》.

어떤 경기에서나 아무 일에서나 다른 분단에 뒤떨어져 본 일이 없는 3분단 동무들은 누구나 분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자 동무는 저대로 통쾌해 했습니다.

《그것 보지, 내가 없으니까 지는 걸…》.

그는 분단 동무들에게 자기의 솜씨를 자랑한듯 해서 어깨까지 으쓱해졌습니다.

분단에서도 키가 제일 크고 예쁘장하게 생긴 그는 공부에서도 물론 누구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모르는 시험 문제가 났을 때에는 곁에 앉은 동무들을 욱박질러서까지라도 베껴 내군 했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그는 이렇게 해서 깜쪽 같이 최우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충고하거나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정자 동무의 눈밖에 나면 마음 펴고 동무들과 놀 수 없게 되니까요.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 당번인 정자 동무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슬쩍 가고 말았습니다. 청소를 다하고 난 문자 동무는 참다 못하여 이 일을 선생님에게 일러 바쳤지요. 이튿날 정자 동무는 선생님에게서 톡톡히 주의를 들었습니다.

이 일을 알고 정자 동무는 문자 동무를 아첨쟁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4분단과 투피구 시합이 있은 뒤부터 정자 동무는 분단 동무들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그들과 잘 휩쓸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방과 후에 분단 동무들이 군중 무용을 재미 있게 배울 때도 그는 《흥 무용이나 배우면 뭘하나》 하고 비웃군 했습니다.

그러나 3분단 동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돈돌라리》 《옹헤야》 《아름다운 우리나라》등 여덟 가지의 무용을 배워 나갔습니다.

무용을 배울 때마다 분단 위원장은 《애 정자야 넌 무용을 잘 하면서도 왜 빠지니? 너두 배우렴아》하고 손목을 잡아

꿀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자 동무는 샐쭉해서 《넌 별 걱정을 다 하누나》하고 쏘아댔습니다.

어느덧 군중 무용은 온 학교에 퍼져서 남자 동무들까지 배우게 되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에서는 둥글게 멸을 선 동무들의 노래와 무용이 유쾌히 벌어지군 했습니다.

때마침 대 위원회에서는 군중 무용 경연 대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3분단 동무들은 벌써 오래 전부터 련습해 오던터라 모두 훌륭히 춰서 1등을 했습니다.

정자 동무도 이날은 춤추는 동무들이 한없이 부러웠지요. 그는 동무들과 함께 춤을 배우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맥 없이 집으로 돌아 가게 되였습니다.

4분단 혜자 동무와 같이 걷는 정자 동무의 눈앞에는 경연 대회에서 1등을 하고 기뻐하던 분단 동무들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너희 분단 애들은 참 훌륭해, 무슨 일에서나 꼭 힘을 합하거던…》.

혜자 동무의 이 말은 정자 동무의 가슴을 더욱 찔렀습니다.

(이앤 나도 군중 무용에 나간 줄만 아는게지)하고 정자 동무는 더욱 복잡한 생각에 잠기게 되였습니다.

(괘니 우쭐해서 분단 동무들만 나무람했어…) 이제야 그는 동무들과 동떨어진 것만 같이 여겨져 쓸쓸해졌습니다.

* *

지난 체육 대회에서도 3분단은 서로 뭉친 힘을 자랑 할 수 있었지요.

집단의 영예를 항상 소중히 여기는 분단 동무들은 체육 경기에서는 물론 응원에서도 1등을 해서 우승기를 탔습니다.

여기에는 정자 동무의 힘도 컸습니다. 그가 륙상에서 1등을 했을 때 분단 동무들은 꽃다발을 안겨 주며 막 기뻐 날뛰였습니다.

처음으로 정자 동무는 분단의 영예—이것은 곧 자기의 영예라는 것을 깨닫게 되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3분단 동무들은 더욱 더 한마음 한 뜻으로 분단을 위해 힘써 나갔습니다.

열성자들은 동무들과 분단 생활을 의논하고 좋은 의견을 살리여 새롭고 흥미 있는 사업들을 날마다 조직해 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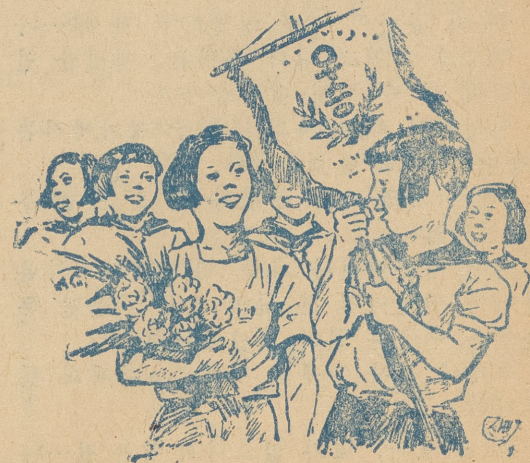
짬짬이 틈을 타서 읽은책 이야기 모임, 공장 견학, 군중 무용, 반별 체육 대회등을 가질 때마다 분단 동무들은 서로 힘을 모아 열성껏 참가하군 했습니다.

이리하여 대 위원회 벽신문에는 례절을 잘 지키는 3분단 1반 동무들, 길'가에서 만난 환자 아저씨를 병원에 모셔간 제3 분단 강 선희 동무, 온상 만드는 일에 열성껏 참가한 3분단 동무들… 등등 제3 분단의 수많은 자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봄'빛을 받으며 락타봉기슭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어 3분단의 자랑으로 남기자고 나무 심기에 열성이였습니다.

이 분단의 빛나는 영예와 전통이 깃들어 있는 우승기는 지금 김 정자 동무네 반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청진 제1 중학교 대에서

3월 30일

김 도 빈

아버지가 방안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때 순희는 밖으로 나오려고 문을 방그시 열었습니다.

토방에는 그 애의 신 옆에 아버지의 신 두짝이 가즈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제일 먼저 눈에 뵌 것은 아버지의 신이였습니다. 큼직한 것이 참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희는 아버지의 신을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희가 토방 아래 내려 서자 강아지가 달려 왔습니다. 강아지는 그애 앞에서 앞발을 들었다 내렸다 재롱을 피웠습니다.

순희는 손'가락으로 강아지의 대가리를 콕 찌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는 대로 신은 발 밑에서 철러덕철러덕거리고 강아지는 앞으로 달려 와서 앞발을 들고 길을 막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애는 손으로 강아지를 밀어 치우며 뜨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강아지는 기분이 좋아서 이번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는 발 뒤꿈치를 물었다 놓았다 하며 갖은 재롱을 다 피웠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길어 가지고 들어 오다가 딸을 보고

《얘! 순희야! 조그마한 발에 큰 신을 신으면 끌려서 못써, 넘어지기 쉽단다. 얼른 네 신을 갈아 신고 놀아라》 하며 부엌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순희는

《엄마! 난 큰 신이 좋아, 내 신은 아버지 신보다 너무 작아 틀렸어, 아버지 신이 내게 맞아》 하며 강아지 옆구리를 툭 치며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까짓 게 나를 쫓아 와? 어데 해 보자!》.

순희는 있는 힘껏 내달리려고 발을 자주 놀렸습니다. 그 순간 신 뒤꿈치가 탁 서로 마주 쳤습니다. 그 바람에 그애는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강아지는 넘어진 순희를 바라 보며 연성 얼굴을 개웃거리면서 발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순희는 땅에서 일어 나면서

《엄마! 내 신 좀 갖다 줘! 아버지 신은 커서 못쓰겠어, 내게 맞지 않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들어 보십시요 잠수함 모형 만들기

잠수함이란 물 우로도 다니고 물 속으로도 다니는 배이다. 여기서 만들려는 잠수함은 고무줄 모타로 만든 배인데 물 우를 달리다가 물 속 10~15메터까지 들어 갔다가 다시 물 우로 나온다.

모형은 다음과 같은 부속품들로 만든다.

번호	명칭	수	재료 크기의 단위 MM
1	동체	1	목재 280×25×21
2	앞 수평키	2	함석 0.5
3	갑판실	1	함석 0.5
4	수면선	—	그린다
5	뒤 수평 키	2	함석 0.5
6	수직 키	1	함석 0.5
7	푸로페라	1	함석 0.5
8	구슬 알	1	—
9	뒤 받침대	1	함석 0.5
10	뒤 고리	1	쇠줄 직경 1
11	고무줄 모타	1	고무줄 1×4
12	밑짐	1	연댕이 80×5×5
13	앞 고리	1	쇠줄 직경 1

모형의 동체는 잘 마르고 가벼운 나무(소나무 젓나무, 이깔나무 등)로서 크기 280×25×21미리메터 되게 베여 낸다. 동체를 만드는 방법과 조립은 그림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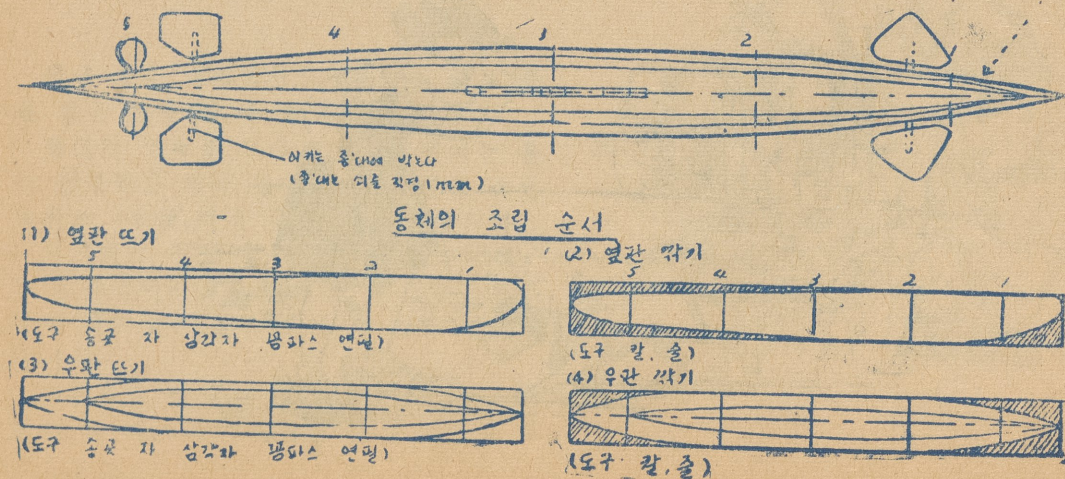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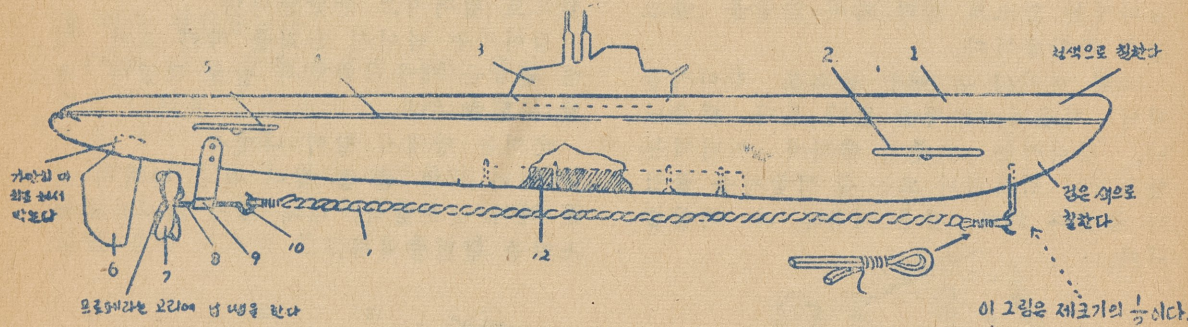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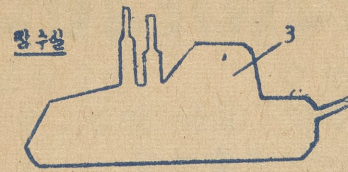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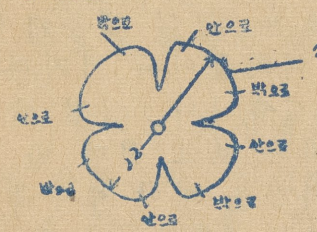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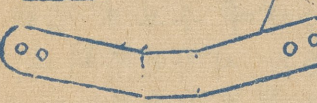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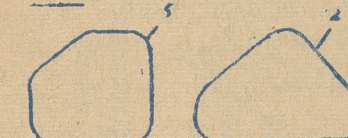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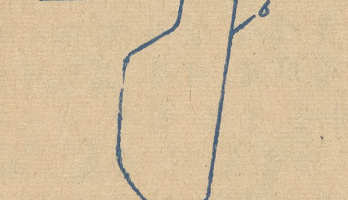
동체를 다 만든 다음에는 곱게 칠을 한다.

모타용 고무줄은 굵기 1~4미리메터의 것으로서 길이는 앞 뒤 고리의 거리와 같아야 한다. 이것은 헌 자전거의 내피와 같은 생고무를 리용하는 것이 좋다.

밑짐 감으로서는 연덩이(또는 쇠뭉치도 좋다)를 마련하는데 무게는 배의 갑판이 겨우 물에 잠길 정도로 하고 그것을 못으로 고정시켜 놓는다.

기타 부분들과 조립하는 방법은 다음의 그림을 보고 하라.

모형이 다 되면 고무줄 모타를 감아서 물에 띄운다.

고무줄을 감을 때에는 그의 한 끝을 고리에서 벗겨 내가지고 고무줄을 1배반쯤 늘군 다음 매디가 지지 않을 정도로 350~400번쯤 감는다. 그 다음은 고무줄을 다시 고리에 끼우고 앞쪽을 약간 쳐들면서 가만이 잠수함 모형을 물 우에 놓는다. 이때 앞 수평키의 앞머리를 조금 아래로 경사지게 한다(뒤' 수평키는 그대로 둠)

조그만 부속품 뜨기

이 부속품들은 모두 자기 크기대로 우선 마분지로 오려 가지고 그 다음 그것을 함석에 대고 오린다.

그들은 좋은 일을 했다

군 내무서장 아저씨께서 온 전화를 받으시며 교장 선생님은 기쁨에 싸여 수첩을 꺼내 쥈다. 《김 상민, 전 인렵, 김 학근, 음 애들이 작년 10월 혁명 기념일에 입단한 소년단원들이로군…》.

오전반의 수업이 끝나자 모두 운동장에 모였다. 교장 선생님은 수첩을 꺼내 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로 지난 2월 25일이였다.

상민이와 인렵이는 학근이와 함께 정거장 앞에서 숨박꼭질을 하고 있었다. 인렵이와 학근이는 숨고 상민이는 그들을 찾고 있었다. 《어데 숨었을가? 옳지 알았다》. 상민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마사진 화차가 있는 데로 살금살금 다가 갔다.

어둠컴컴한 화차 속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던 상민의 눈에는 생각지 않던 것이 띄였다. 《애들아 이게 뭘가?》. 그는 놀라 웨쳤다. 뛰여 온 학근이와 인렵이도 눈이 휘둥그래졌다.

필로 쌓인 천이 수두룩하였다.

인렵이는 내무서에 달리고 학근이는 소비조합 상점으로 뛰였다. 상민이는 그 자리를 지켰다.

한참만에 내무서원 아저씨와 상점 누나가 뛰여 왔다.

세 소년단원에 의하여 상점에서는 천을 찾게 되였다.

며칠 전 밤에 이곳 상점에서는 달구지에 천을 싣고 오다 한퉁구리 흘렸었다.

그것을 얻은 누가 남몰래 이곳에 갖다 둔 모양이였다.

《…이렇게 세 동무는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 천 값이 5만원이라니까 그만큼 나라에 리익을 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세 동무의 훌륭한 일을 전체 소년단원들 앞에서 칭찬하였다. 이들은 평남 순안군 제2 인민 학교 대 제 2학년 어린 소년단원들이다.

너희들은 왜 순오를 못데려가 그러니

◇최 옥 선◇

순오는 오늘도 또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모인 반 모임에는 참석했습니다.

《순오야 야단 났어. 래일 학교에서는 전교 실력 시험이 있단다. 결석하는 동무가 있어두 그렇구 락제한 동무가 있는 분단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두 모범 분단이 못된대. 그래서 오늘 분단에선 너 때문에 걱정이 많았단다. 어서 외우기라두 해서 좋은 점수를 맞도록 하자》.

새로 들어 온 순오를 데리고 같이 생활하게 된 3반 동무들은 순오에게 열심히 설명해 주다 나중에는 이렇게 외우기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순오는 공부하면서도 래일 학교 갈 걱정에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반 동무들은 일찌기 순오네 집을 찾아 갔습니다.

《순오야! 학교 가자》하고 동무들은 합창하듯 부르며 대문

을 들어 섰습니다.

순오는 아버지와 함께 묵묵히 벼'짚을 묶고 아버지가 대신 《우리 순오는 집'일 때문에 학교 못 간다. 너희들이나 가거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어쩔 줄 몰라 서로 바라 보고 섰던 반 동무들은 책가방을 벗어 수두룩이 모아 놓고는 《우리, 순오를 도와서 일을 빨리 끝내고 같이 학교 가겠어요》하며 우루루 달려 붙어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의아해서 바라 보시던 순오 아버지는 《애들아 집에서들 알면 어른들이 날 욕하겠다. 그만 둬라! 그런데 너희들은 왜 순오를 못 데려가 안타까워 그러니 응》 하고 물으셨습니다.

《순오가 자꾸 결석하면 우리 반이 락후반 소릴 들어요》. 같이 반 생활하는 분단 벽보 주필 순임이가 말했습니다.

순오 아버지는 이날 할 수 없었던지 순오가 학교에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순오 아버지가 왜 순오를 학교에 못가게 할가 하고 동무들은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창포 인민 학교가 있는 이 마을은 리 승만 통치 밑에서 신음하던 마을이라는 것을 알면 이상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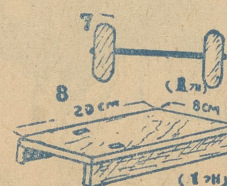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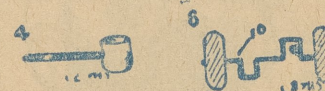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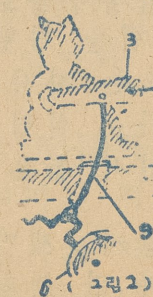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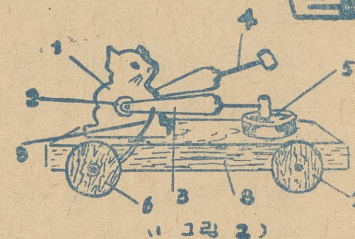
우리 공화국 정부의 품에 안기면서야 처음 이 마을에 학교가 생겼습니다.

때문에 인민 학교 학생들도 엄청나게 큰 동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아버지가 좀처럼 학교에 보내지 않아서 도중에 입학한 순오는 특별히 큰 편이였습니다.

순오 아버지는 계집애를 공부시켜 뭘 하겠는가 하시면서 순오가 학교 가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순오가 아버지도 모르게 어머니더러 졸라 학교에 입학하던 날입니다.

《순오도 동무들처럼 지난 날 학교 문이라군 들어가 보지도 못한 동무입니다. 그런데 동무들보다 학과가 많이 떨어졌으니

분단에서는 순오를 힘껏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분단 지도원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선생님은 분단 벽보 주필인 순임이와 같이 앉게 하여 순오를 도와 주도록 하였습니다. 분단에서는 그가 소년단원은 아니지만 한 마을에 사는 반 동무들과 같이 반 생활도 시키면서 학습을 도와 주자고 하였

습니다.

그런데 순오는 며칠이 되지 않아 이틀이 멀다 하고 아버지 때문에 자주 결석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순오가 결석할 때마다 반 동무들은 저녁 반 모임에서 그날 배운 것을 가르쳐 주면서 공부하였고 특히 실력 시험이 있는 날은 밤 늦게까지 그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실력 시험 결과는 반 동무들이 그렇게 애썼으나 보람이 없었습니다.

순오는 아직 글도 잘 읽지 못하고 있었는데 반에서는 그냥 어려운 시험 문제를 외우게 했으니까요.

시험을 치를 때 순오의 머리속에서는 동무들과 같이 외우던 문제들이 떠 올랐으나 그것도 글 쓰기가 서틀어 적을 수 없었습니다.

순오가 학습을 잘 못하는 것은 아버지가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 뿐이 아니였습니다. 시간 중에 한번 손들어 보지도 못하고 시험이 있을 때면 밤낮 창피를 당하는 일을 생각하면 (그까지껏 학교를 그만 둘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뒤설레여서 또한 그만 공부하는게 딱 싫어졌기 때문이였습니다.

외우기는 했지만 시험지에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분단에서는 그전처럼 분단의 학과 성적만 생각하고 어려운 시험 문제를 외우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반 동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순오의 마음을 잘 알게 된 반 동무들은 쉬운 문제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순오도 차츰 학습에 취미를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오는 받아 쓰기와 읽기를 동무들과 같이 하면서 글'자를 배우기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전체 학급 학생들의 앞에선 아직 선생님의 물음에 씨원히 대답하지 못하지만 다정해진 반 동무들 앞에서는 곧잘 토론했습니다. 반동무들도 순오를 돕기에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순오는 차차 분단이나 반에서 조직하는 실험 실습에도 취미를 가지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재미 있게 조직하는 분단과 반 생활은 그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화 큰 둥이 작은 둥이

윤 응건

큰 둥이도 콩 한 말
작은 둥이도 콩 한 말
염소 형제 의좋게
장 보고 돌아 오는 길

껑충 껑충
큰 둥이 앞서거니
깡충 깡충
작은 둥이 뒤서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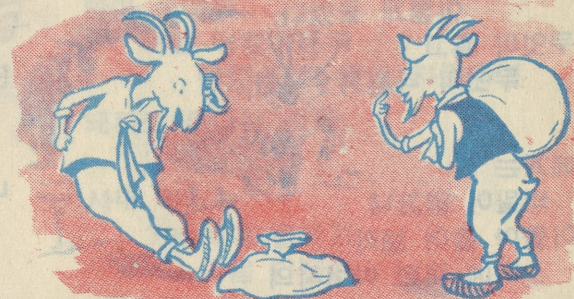
큰 둥이 콩 자루엔
콩알만한 구멍이 뚫어져
한 알 두 알…
떨어졌다네

작은 둥이 뒤 따르며
콩 자루 구멍 보았건만

«어쩌나 어쩌나?» 하다…
그냥 눈을 감았다네.

어제 저녁, 큰 둥이
비지 밥 훔쳐 먹으며
«형님께 참견치 말라»던 말,
작은 둥이 피뜩 생각키웠었네.

큰 둥이 코'노래 부르며
집에 와 닿았을 때
«에이쿠 구멍이 났댔구나?!»
빈 자루에 깅큼 놀랐다네.

약이 오른 큰 둥이
«작은 놈아! 이것도 못봤니?»
«형님 일일랑 참견치 말라면서요?»
작은 둥이 음메 대답했다네.

어느날 순오의 집에는 먼 곳에 있는 아저씨로부터 아버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는 편지를 가지고 다른 집에 가지 않아도 되였습니다. 순오가 그 편지를 아버지에게 곧잘 읽어 드렸으니까요.

그때 온 식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학교가 좋긴 좋구나》라고 하시며 순오의 아버지는 지난 날 순오를 학교에 못가게 하던 일을 뉘우치시는듯 하셨습니다.

순오는 시험에서도 차츰 좋은 성적을 받게 되였습니다.

순오가 입단하는 대 모임을 앞둔 어느 날 대 벽보에는 순오를 도와 준 반과 분단 동무들의 모범적인 활동이 크게 실렸습니다.

그후부터 1년이 지난 오늘 3분단은 순오와 같은 동무들을 열심히 도와 실험 실습과 학과 모임을 자주 가지며 동무들의 학과 성적을 높인 모범 분단으로 알려졌고 순오도 우등에 가까운 성적을 올리면서 졸업 시험을 치를 자랑찬 앞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남도 배천군 창포 인민 학교 대에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마야꼽쓰끼

작은 사내 아이가
아버지에게로 와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고.

나에게는
비밀이 없거니
아이들아 들어 보라
이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을,
나는 여기다
옮겨 써 놓았으니

만약 바람이
지붕을 쥐여 뜯고
우박이 쏟아지면
누구나가 다 아는 일
이것은 바로
산보하기에
나쁘다.

소낙비가 퍼부어 내리더니
지나가 버렸다.
태양이 세상을 비친다.
이것은
대단히 좋다.
어른들에게나
아이들에게나—

아들아!
만약 얼굴에
때가 올라
야밤보다 더 까맣다면
이것은 물론
대단히 나쁘다
어린애 피부에는—

만약 사내 아이가
비누와 치약을
좋아한다면
이 아이는 대단히 귀엽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만일
나쁜 싸움쟁이 아이가
약한 아이를 때린다면
나는 이런 아이를
시에다 조차
쓰지 않겠다.

—때리지 말라
누가 더 작은 애니—
이렇게 소리치는
이 사내 아이는 좋다
대단히 훌륭하다.

만일 비가
책과 뽈을
멀리 한다면
10월의 혁명가들은
이렇게 말할게다
대단히 나쁜 아이라고.

만일 사내 아이가
로동을 사랑하며
책을 좋아한다면
이런 아이를 두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는
좋은 아이라고.

뚱뚱보※ 가
가마귀를 보고
무서워하며 달아난다.
이 아이는
정말 겁쟁이다.
이것은
대단히 나쁘다.

비록 어리지만
무서운 새와
싸워 이긴다면
이런 용감한 아이는
좋고
생활에서 쓸모가 있다.

진탕에 뛰여 들어
샤쯔 마치기를
좋아하는
이런 아이를 두고 말하길
그 아이는 나쁘고
게자자하다고—

자기 신을 깨끗이 하며
덧신을
닦을 줄 아는 아이는
그는 어릴지언정
좋은 아이다.

여러 아이들아
이것을 기억해 둬라.
알아 두어라.
어떤 어린이든지
만일 돼지 같이 자란다면
돼지로 큰다는 것을.

사내 아이는
기뻐하며 돌아가
마음 다졌다.
«앞으로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은
안 할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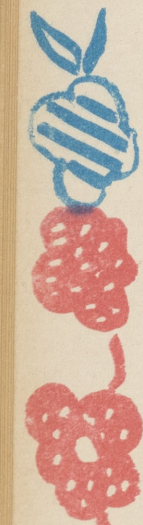
※ 뚱뚱보는 허풍서니를 의미한다.

싸워야 했지요

그림 림 영환

—리 오중 영웅의 이야기에서—

태백산맥 한 기슭에 소붓이 들어 앉은 적은 마을 어구에는 다 쓸어져 가는 오막사리 한채가 서 있었다.

동천 산 마루에 해'님이 솟아 오르고 마을 애들이 왁짜지껄대며 학교로 가는 때가 되여 오막사리에서도 소년 하나가 뜨락으로 나왔다. 학교 가는 자기 또래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섰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이 였다.

여덟살 나던 해 따스한 봄볕을 담북 받으며 아버지를 따라 처음 학교 가던 날이였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목을 꼭 잡으며 《공

부만 잘 하면 아버지는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너를 중학교까지 보내 주마》.

《아버지…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래요. 그깟 동리애들께 질 줄 아세요》.

《그래 네가 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봤으면…》.

기쁨에 작은 가슴을 설레이며 먼 앞날을 그리던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났다.

기둥처럼 믿어 오던 아버지를 뜻밖에 여인 소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침 안개 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설음과 분함을 이겨낼 길이 없었다.

가난을 이겨내며 학비까지 마련하느라고 갖은 애를 쓰시던 아버지가 겨우내 병석에 누웠다가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온 식구들이 성심 성의를 다하여 아버지를 간호해 드렸지만 마음만으로서는 아버지의 병환을 낫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름뿐인 장례를 지낸 날 저녁이였다. 큰 기침 소리를 뱉으며 지주놈이 이 집에 달려 들었다.

《얘 애비가 죽었다지 소작료도 제때에 바치지 못하더니 밭 갈 놈마저 없어졌군, 이젠 소작 주었던 땅은 다른 사람에게 주겠으니 그리 알게.》 무슨 호령이나 하듯

웨쳤다.

《밭 갈 사람이 없다니 무슨 말씀이오니까. 우리 세 식구가 밭을 가옵게, 그런 말씀 이랑…》.

《아니 황소 같던 얘 애비가 있을 때도 소작료는 커녕 내 덕에 살아 왔는데 요런 쪼무래기들이 내 밭을 갈아 헝》하고 소년을 턱으로 가리키며 빈정대였다.

《그래도 세 사람이 얘 애비 한 사람만 못하리오까…》.

《허— 말 말게 아직도 나더러 먹여 달라는 말인가? 없네 없어》.

이날 지주놈은 소작 주었던 땅을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이번 가을에 갚기로 하고 지난 가을 꿔 먹은 량식 값으로 보잘 것 없는 살림까지 거의 들어 갔다.

이제 소년에게는 학교가 아니라 살 길을 찾아 부대기를 일쿠는 어머니와 형님을 돕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일을 하고 또 해도 겨울이 지나기 전부터 끼니를 넘기지 않으면 안되였다. 두해를 풀뿌리로 목숨을 이어 가며 벌었으나 가을이 오면 낟알은 지주놈이 빚값으로 거의 빼앗아 갔다. 그리고는 얼마 남지 않은 빚에 다시 된 리자를 달아서는 다음해 가을까지 또다시 그전 해 가을만 한 빚을 쳐맸다. 그러니 일생을 두고 물어도 빚은 다 갚을 길이 없었다.

소년이 열세 살 나던해 봄이였다. 밭 갈이가 한창인 어느 날 지주놈은 또 빚 받으러 달려 들었다.

지주놈은 이 집에 농량이 떨어져서 풀뿌리로 목숨을 이어 가며 일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고 가을이 되여야 얼마간이라도 빚을 받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알을 부라리며 빚 갚으라고 호통이였다. 사실은 빚 받으러 온 심뽀만은 아니였다. 닳아 빠진 연상까지라도 빼앗고 이집 소년을 머슴으로 끌어 갈 작정으로 온 것이였다.

어머니는 빚 값에 자식을 빼앗기고도 말 못하는 세상을 한탄하며 눈물을 머금고 이듬해 봄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 부대기를 일쿠고 세 식구가 한집에서 다시 살아 보리라 굳게 결심했다.

오막사리나마 제집을 쓰고 지주의 땅을 부쳐도 이러했는데 지주의 머슴으로 지낸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었다. 일을 하다가 허리 펴느라고 서도 욕이요, 나무하러 갔다가 발'등에 상처를 입어도 매질이였다. 나무를 적게 해 왔다고 밥도 주지 않았다. 자나 깨나 머슴인 소년에게는 지주 유가놈의 호된 채찍과 주림이 떠날 줄 몰랐다.

그러나 소년의 가슴에는 지주 유가놈에 대한 증오의 불씨가 움터 자라 갔다.

머슴 살이로 두해가 지났지만 세 식구가 한데 모여 살지 못했다.

어머니와 형이 죽을 힘을 써서 부대기 농사로 낟알을 좀 거두게 되여 올해에는 빚을 갚고 동생을 데려 올 수 있겠거니 했는데 경찰놈들이 우루루 달려들어 죄다 빼앗아 갔다. 못가져 간다고 막아 섰던 형은 경찰들에게 붙들려 가서 병신이 되여 나왔다. 형은 죽어도 모여서 죽자고 동생을 데려 오자고 했다. 그래 어머니는 지주를 찾아 가서 사정했으나 그 동안 먹여 준 값으로 쌀 열섬을 내라고 시치미를 떡 뗐다.

편히 앉을 사이도 없이 일을 시켜 먹고

도 밥 값을 못했다고 뻔뻔스러운 수작이였다.

이런 지주의 압박과 착취는 소년의 가슴 속에서 자라는 불씨를 더 크게 더 세차게 타오르게 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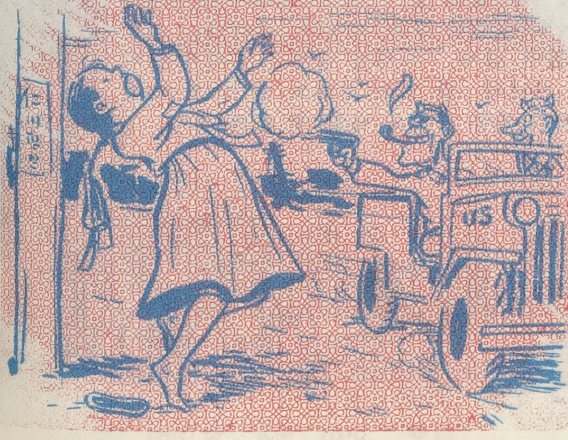
해'볕 따사로운 창문으로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리 오중 영웅은 그후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소년이 산에 나무하려 갔다가 태백산 빨찌산을 만났던 이야기며, 그후 지주의 소를 끌어다 량식이 떨어

진 빨찌산에 준 일이며, 인민 군대를 만나 의용군으로 들어가 인민 군대로 된 이야기 등…

《바로 그 소년이 접니다. 어떻게 공을 세웠는가구요? 우리 인민들을 못살게 구는 그놈들과 싸워야 했지요. 쌀과 옷'감과 모든 물건을 만들어 내는 우리 인민들을 못살게 굴고 조국 통일을 반대하는 그 원쑤들과 싸워야 했지요…》하고 영웅은 쳐들었던 굳게 쥔 주먹으로 둥근 상 우를 콩 내려 쳤다. 소리는 작게 울렸으나 힘있는 동작이였다.

소녀의 불행한 죽음

얼마 전에 인천시 만석동에서 리 방배라는 소녀가 갑자기 죽었다.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미군 헌병 두놈이 총으로 쏘아 죽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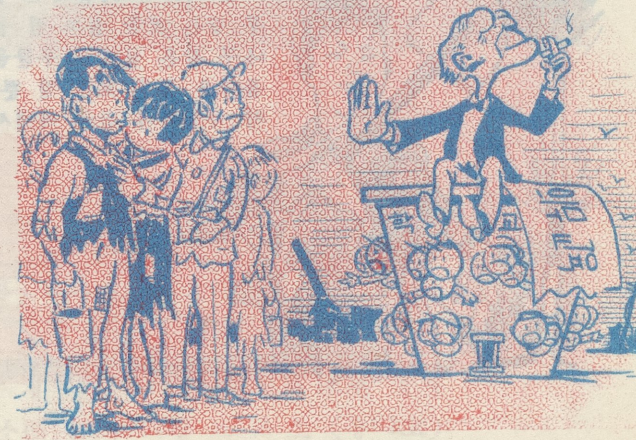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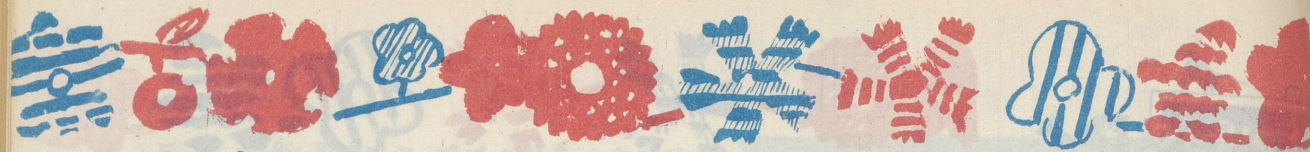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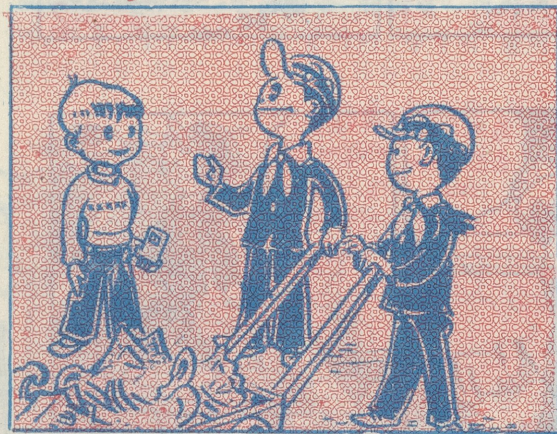
미군은 최근에만도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덕포리에서소녀 한명을, 서울시 수색동에서 소년 한명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미군은 사람의 가죽을 쓴 짐승이다.

말 뿐인 《의무 교육》

리 승만 도배가 《국민 학교 의무 교육》 실시에 착수했다고 떠든지 벌써 4년째나 된다.

그러나 현재 남조선 《국민 학교》의 모자라는 교실은 2만 7천 159개나 된다. 학교는 짓지 않고 오히려 있는 학교마저 미군에게 빼앗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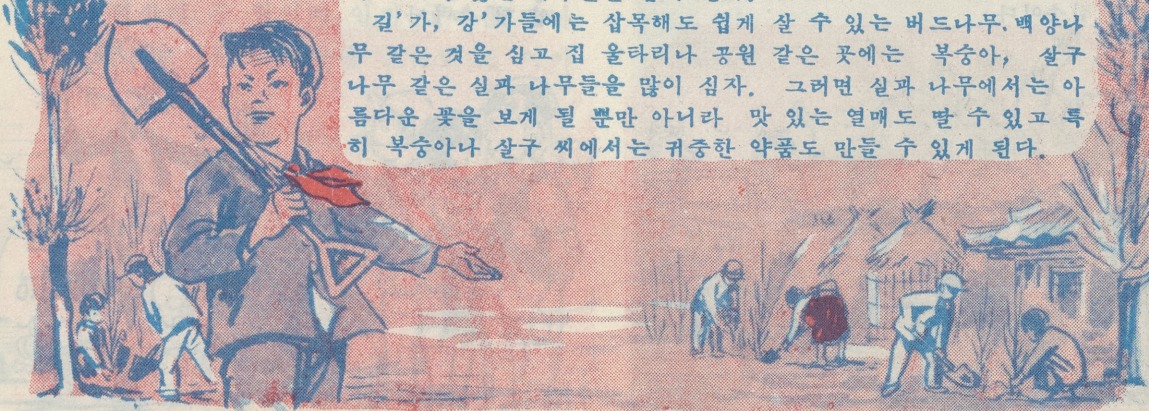
또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아내므로 로동자 농민의 아들 딸은 학교에 갈 념조차 못낸다. 그렇기 때문에 놈들이 떠드는 《의무 교육》은 말뿐인 헛 소리다

두가지 대답

옆집 아이—이건 다시 새 고무신이 되고 새 종이로 된단다. 그러니까 버릴 수 없지!
우리 소년단원들이 모두가 파고무 파지를 1kg씩만 모아 봐, 그러면 고무신은 60만 켤레, 종이는 우리가 쓰는 학습장 1,920만권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된단다.
형—?…

동생—그건 무얼 하러 가져 가니?
형—학교에서 가져 오라니까 가져가지 뭐.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에서는 거리와 마을을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많은 나무들을 심게 된다.

길'가, 강'가들에는 삽목해도 쉽게 살 수 있는 버드나무. 백양나무 같은 것을 심고 집 울타리나 공원 같은 곳에는 복숭아, 살구나무 같은 실과 나무들을 많이 심자. 그러면 실과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맛 있는 열매도 딸 수 있고 특히 복숭아나 살구 씨에서는 귀중한 약품도 만들 수 있게 된다.

수차는 완공되여 간다 (신의주 제 3 중) 김 창 규 촬영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김 칠성 리 원우 리 동무 송 정우 신 진균 최 윤호

1957년 4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7년 4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7년 제 4 호 (총91호)
발행소 민주 청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415 값 25 원 65,000부 발행

즐거운 휴식시간

평양 제13중학교 인민반 2의9 박문희